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5세 파랑반의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양 미 선

만 5세 파랑반의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양 미 선

인 준 서

양미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동화유치원 과랑반의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동극 활동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수행한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이다. 이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역할 및 유아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만 5세 과랑반에서 이루어지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과랑반의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3. 과랑반의 동극 활동 진행 과정에서 유아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A구에 위치한 동화유치원 만 5세 과랑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과랑반 유아 30명과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이다. 연구 기간은 2008년 3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문제 파악을 위한 1회의 동극 활동을 한 후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6회의 동극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실행연구의 과정은 문제 파악과 변화의 계획 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단계, 이러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반성) 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단계의 실행연구 모형을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 사진과 비디오 촬영, 심층 면담, 저널쓰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어 해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가 평소 진행했던 동극 활동에서는 배역을 정할 때 다수

의 유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유아들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배역에 선정되지 못한 유아들의 불만과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동극 진행 과정에서 유아들은 등장과 퇴장, 대사 말하기, 행동하기 등의 배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편의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학급 전체 유아가 극작가, 스텝, 배우 중 한 가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통해 동화의 주제와 등장인물, 줄거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둘째, 6차에 걸친 동극 활동 개선 과정에서 교사는 동화를 읽어주고, 역할 분담과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실행하였다. 동극 활동 중 유아들이 극작가, 스텝, 배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교사는 유아들이 맡은 역할에 대한 제시자, 시범자, 참여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동극이 거듭됨에 따라 교사는 유아들의 역할 수행에 따른 개입을 줄이고 소극적 유아 지원자,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셋째, 동극 활동 진행 과정에서 유아는 극작가, 스텝, 배우, 관객,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극 활동이 거듭되면서 유아들은 단어 제시 수준의 극작가에서 동화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극작가로 변하게 되었다.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정형화된 소품에서 창의적인 소품 제작을 하게 되었고, 또래들과 협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배우 역할을 한 유아들은 처음에는 대사, 행동, 등장과 퇴장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동극이 거듭되면서 등장인물의 특징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객이 된 유아들은 방관자적인 모습에서 배우의 등장과 퇴장이나 대사 등을 돕는 완전 참여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평가자로서의 유아들은 동료 배우에 대한 단순한 평가에서 발전해 배우의 대사와 행동, 해설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극을 감상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까지 평가하게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자	4
II. 이론적 배경	6
1. 동극 활동의 교육적 가치	6
2. 동극활동에서의 교사의 역할	9
3. 선행연구	12
III. 연구방법	16
1. 연구참여자	16
2. 연구절차	19
3. 자료수집 방법	21
4. 자료분석	24
IV. 결과 및 해석	25
1. 동극 활동의 문제점	25
1) 과량반 동극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2.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	31
1) 1차 동극 활동: 역할 제시자로서의 교사	31
2) 2차 동극 활동: 역할 시범자로서의 교사	36
3) 3차 동극 활동: 역할 참여자로서의 교사	41
4) 4차 동극 활동: 역할 지지자로서의 교사	52
5) 5차 동극 활동: 소극적 유아 지원자로서의 교사	57
6) 6차 동극 활동: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로서의 교사	61
3. 동극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변화	66
1) 조력을 원하는 극작가들	66
2) 정형화된 소품을 지양하는 스텝들	69
3) 무대에 적응하는 배우들	74
4) 동극 진행의 도우미가 되는 관객들	85
5)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평가자들	89
V. 결론 및 논의	96
1. 결론 및 논의	96
2. 제언	10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사 진 목 차

<사진 1>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소품: 두더지	70
<사진 2>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소품: 염소	70
<사진 3>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소품: 고양이 코	71
<사진 4> ‘꼬리를 돌려 주세요’ 소품: 여우 꼬리	71
<사진 5>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소품: 닭 날개	72
<사진 6>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소품: 두루미 날개	72
<사진 7>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소품’: 양털 옷	74
<사진 8>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소품: 개똥 옷	74
<사진 9> ‘무지개 물고기’ 소품: 문어 다리	74
<사진 10> ‘무지개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비늘 제작 모습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들이 스스로 독서를 하기 전부터 양육자들은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며 이를 접하게 한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유아는 책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정보와 세상을 만나게 되며 이 시기에 접하게 되는 도서가 동화이다.

동화를 통해 유아들은 즐거움과 재미, 상상력, 사고의 발달, 풍요로운 정서 생활, 심미감 발달, 주변 세계의 이해, 자기 통제력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체득하게 된다(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또한 동화는 동화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단 활동의 소재들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동화 속에 나오는 내용을 이용하여 신체표현, 이야기 이어 짓기, 동시 짓기, 동극, 음률활동, 조형활동, 조작활동, 신체표현, 게임, 언어활동 등 다양한 다른 영역의 활동들과 통합하여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유아들은 동화를 듣는 동안 여러 가지 대·소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며 활동 전개시 동화의 내용과 느낌을 상상하면서 더욱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동화와 연관하여 진행하는 활동의 하나인 동극은 교사가 들려 준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역할을 유아들이 분담하고 이야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여 극화하는 것이다(교육부, 2000). 2007년 12월에 개정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표현생활 영역의 ‘예술적 표현 즐기기’ 하위 내용으로 ‘극 놀이로 표현하기’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극화 활동이란 이야기가 있으며 가작화된 요소가 포함된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 형태를 뜻하며, 이러한 극화 활동을 소품, 장소나 활동 목적에 따라 손인형 놀이, 역할극, 동극, 신체

표현, 노래극으로 분류할 수 있다(장지영 외, 2005).

동극 활동에 유아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배우가 되어 등장인물을 직접 표현하는 경험 이외에도, 소품이나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 인물을 이해하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이전에 동화의 이야기를 듣고 맥락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이나 배역을 정하는 과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장지영, 김성혜, 2005).

동극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감정과 요구를 조절하는 기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 협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소품과 무대를 제작하면서 그림그리기, 만들기와 꾸미기를 경험하고 배우가 되어 연기하면서 동작으로 표현하는 등의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화를 들으면서 바른 태도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바르게 발음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책에 관심 가지기 등의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의 발달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극 활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동극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창의성과 관련해서 김미예(2000), 이선영(2006), 이귀열(2007), 임금선(2000), 정병화(2004)의 연구에서는 동극 활동이 유아의 창의력과 관련된 모든 하위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상상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과 관련해서 강태희(2007)는 창작 동화를 듣고 극 놀이 활동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언어 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김효정(2005)은 통합적 동극 활동이 단순 동극 활동보다 유아들의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정은주(2008)는 동극과 창의적 연계활동이 유아들의 언어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황미(2003)는 동극 중심 통합 활동이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 밖에 이선미(2004)의 연구에서 동극을 통한 수학교육 활동이 유아의 수
학개념을 향상시키고, 수학에 대한 태도를 바람직하게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2007)의 연구에 의하면 반편견 동화를 통한
동극활동이 4, 5세 유아들의 편견영역인 위모, 장애, 계층, 가족구성, 인종, 모
두 편견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자(2005)는 통합적 동극
활동은 유아의 정서 지능의 하위 요소 중 자기인식 능력, 자기조절 능력, 타
인인식 능력, 타인조절 능력, 자기 동기화 능력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극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동극이 유아의 창의성, 언어, 수,
반편견, 정서 지능 등에 미치는 효과와 동극의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극을 매개로 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어 실제로 어떠한 과정으로 동극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
다.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서 동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극 과정에서
유아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나타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 박현순(2002)은 동화를 활용한 동극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해 동극 진행과정에 대해 조망하고, 동극 활동에서 교사
와 유아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극 활동을 주제로
연구 시범 운영 중인 유치원의 원감이라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교사와 유아들
을 조망한 연구이다.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와 유아가 동극을 진행하는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동극
활동의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계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동화유치원¹⁾ 과량반의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학급에서 이루어
지는 동극 활동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수행한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써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1) 본 논문에 제시된 유치원, 학급, 유아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역할 및 유아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5세 파랑반에서 이루어지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파랑반의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3. 파랑반의 동극 활동 진행 과정에서 유아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3. 연구자

나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탄절 무렵에 성극을 올리게 되었고, 그 때 처음 맡았던 역할은 ‘구두담이’였다. 언니 오빠들과 성극 연습을 하면서 의상도 만들어 입고, 소품도 착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성극이었던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두딱! 싹! 구두 닦으세요!”라는 대사는 지금도 생생하다.

대학시절에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유아교육과의 바쁜 학사 일정으로 연극 동아리에 같은 과 동기나 선후배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의 극을 완성해가며 느끼던 여러 감정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여운을 남긴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유치원 현장에 나와 경험하게 된 동극은 그리 낯선 활동이 아니었다. 초임 시절부터 반복되는 대사나 재미있는 동작 등이 나오는 동화를 접하게 되면 별 두려움 없이 동극 활동을 했

다. 유아들 또한 “야호! 신난다”라고 환호하며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는 동극활동을 위해 동화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소품(대부분 동극 머리띠 이용)을 준비해 진행했다. 또한 동화를 들려주고, 배역을 정하고, 공연을 하고, 평가하고 재공연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초임시절이나 경력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나 동극을 진행하는데 배역 정하기와 공연 중 유아들의 부족한 표현력을 증진시키는데 문제가 있어 왔다. 유아들이 선호하는 배역이 정해져 있고, 선호하는 배역을 여러 유아들이 희망하다보니 갈등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연을 하기도 전에 유아들은 불만이 가득하고 공연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기가 대부분이었다. 공연을 관람하는 유아들도 공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웃고 떠들기 마련이다. 배역을 맡지 못한 유아들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재공연을 하게 되면 이미 공연을 했던 유아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재공연에서도 배역을 맡지 못한 유아들은 울음보를 터트리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나는 유아들이 선호하는 활동이면서도 교사 자신에게는 그리 행복하지 못한 동극 활동의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통합적 동극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며, 모두 참여하여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동극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동극 활동의 교육적 가치

동극은 교사가 들려 준 동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들이 극화해 보는 활동(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 2000)으로 대본을 외우거나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의 내용을 유아 나름대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이다(윤애희, 2003). 동극의 진행 과정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행동 중심의 이야기를 들려 준 후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역할을 분담하고, 환경을 구성하여 극화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유아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상상 등을 충분히 표현하게 되고, 동화의 내용이나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고력 및 지도력이 신장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가지게 된다(교육부, 2000).

이러한 동극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유아의 듣기, 말하기, 기억하기, 회상하기, 정확한 발음, 어휘력 향상 등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고 동극의 사건과 즐거리가 논리 및 인과성, 통찰력을 발달시켜 유아의 인지발달을 돕는다. 또한 동극 과정에서 협동과 친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대리 체험 및 자기 표현을 통해 카타르시스적 자기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정서 및 자아 발달을 돕는 등 동극은 전인발달에 있어 유용한 학습 매체라고 할 수 있다(장지영·김성혜, 2005).

신헌재, 권현준, 그리고 광춘옥(2007)은 동극의 효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동극이 모방의 예술이기 때문에 동극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유아나 감상하는 유아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일체감을 갖게 되고 다른 문화의 삶과 지식을 넓힘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극은 종합예술

이기 때문에 동극을 통하여 각 개별 예술을 한꺼번에 익힐 수 있으며 미에 대한 감정을 배양 할 수 있다. 동극은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언어 구사력과 적절한 언어 표현, 상대를 고려한 언어 태도 습득 등 우리말 공부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동극 활동이 진행되는 기본 과정은 유아들의 협동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동극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보다 협동을 배우며 준비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와 협의와 토의를 하면서 사회성을 함양하게 된다. 더불어 소극적인 유아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며 공동체 의식과 협력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된다.

Whitehead(1994)는 동극 상연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유아들이 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동극을 하는 동안 문학적 체험에 대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극은 유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나 주인공, 구성, 배경 주제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상과 같은 동극의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동극 활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아들은 동극을 위해 무대와 소품을 준비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게 되고, 배역 정하기 등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상호 협동의 기회를 갖고, 평가를 하면서 활동에 몰입하여 관찰하고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사회적인 시각에서 감정, 기분, 생각을 탐구하게 된다(박현순, 2002).

이영자(1998)는 동극은 적절한 동화를 선택하여 읽어 주거나 유아들이 꾸민 동화를 읽어주는 것, 배역 정하기, 소품 만들기, 동극하기, 평가하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접목될 수 있는 통합접근적인 교육수단이고 하였다. 유아교육에서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는 “유아의 과거 경험과 현재 경험을 통합시켜 재구성하며 이를 다시 미래의 경험으로까지 통합시켜 주는 .일, 유아와 교사의 경험을 연결시켜 통합시키는 일, 교육 내용간의 연계 및 통합, 학교와 지역사회 생활간의 통합, 유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개

념을 통합·재구성하는 일, 유아 발달 영역간의 통합, 영역별 활동 간의 통합을 통한 전인교육을 의미”한다(중앙대학교 부속유치원 편, 1995:p7). 발달 영역간의 통합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영역의 교육 내용들이 한 활동에 서로 통합되는 것이다. 활동 영역 간의 통합은 여러 활동 영역들이 유아가 계획한 활동들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 유치원과 지역 사회 통합은 견학이나 자원 인사를 초청하여 유치원 안팎의 경험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2000).

유치원 활동지도 자료집에서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은 인지론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통합은 유아가 지식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고, 경험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유아가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 지식의 변화와 팽창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통합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통합적 학습 경험이 필요하고, 조화로운 전인 발달을 위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즉, 인간 두뇌의 통합적 기능에 부합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 통합이 요구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유치원과 사회의 결속력을 높여 주며,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의 통합을 주장한다.

2. 동극활동에서의 교사의 역할

동극활동을 보다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극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동극활동에서 교사는 문제해결을 돕거나 암시를 제공하거나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최순자, 2005). 이는 동극이 교사에 의해 강요된 연습 활동, 보여지기 위한 활동이 아니며, 결과보다는 과정상에서 유아가 보이는 창조적인 표현과 상호작용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극의 과정에서 교사는 배역을 정하고 유아들과 함께 소품과 무대를 만들고 진행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원작이 가진 메시지에 대해 유아들과 반복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심화할 수 있다. 동극을 통해 교사는 유아 스스로 자연스럽게 소리, 언어, 표정, 동작, 몸짓 등으로 표현하는 것, 친구와 함께 가작화 요소를 즐기면서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결과적으로 심미적인 문학작품을 경험하도록 돕는다(장지영·김성혜, 2005).

교사 역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극 놀이 상황이 대부분이고, 동극 활동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동극 활동과 극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2007년 개정 고시된 유아교육과정에서는 극놀이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제언하고 있다. 첫째, 유아가 선택한 주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해 준다. 둘째, 극놀이 주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해 준다. 셋째, 유아가 극놀이에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견학, 이야기 나누기 등 경험을 마련한다. 넷째, 극놀이 중에 유아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에 귀를 기울인다. 다섯째, 가능한 당면 문제를 유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여섯째, 극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를 돕기 위해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다. 교사의 개입에 관해서 적절하고 전략

적인 개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나 유아의 극놀이를 방해하거나 유아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개입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윤향미(1996)는 유아의 사회 극적 놀이에서 교사 개입이 있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 역할, 사물,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 유아간의 상호작용, 유아간의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사회 극적 놀이가 확장되도록 유아들의 놀이상황을 관찰하고 다양한 교수전략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현순(1990)은 극놀이 영역에서 교사 개입이 유아의 놀이 지속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가 대화, 참여, 방향제시를 놀이 개입 유형으로 사용할 때 집단놀이, 극놀이, 집단-극놀이의 지속 시간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또래간 상호 역할적 사회놀이의 지속 시간 증가에도 효과가 있었고, 또한 방관놀이의 지속시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장영미(1998)의 유아 극놀이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는 극놀이를 준비하고 아이디어 제공하였으며 놀이에 참여했다. 이러한 준비, 아이디어 제공, 놀이 참여는 교사의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 유아의 놀이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았다.

박현순(2002)은 동극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 교사는 교사, 공동극작가, 해설자, 감독의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공동극작가의 역할로 교사는 유아들에게 확산적인 질문을 해 주어 유아들의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주었고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의 내용과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유아들이 전문적인 작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무대와 소품 준비하기에서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그 주제에 따른 역할, 상황, 장소, 소품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며 이 때 교사는 유아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극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며 즉흥적인 연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 교사는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격려해주고 그러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동극은 미술, 음악, 신체, 문제해결, 인지 발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동극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를 충분히 계획하여 실험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사는 현재 교실에서 진행 중인 주제와 연결이 되도록 적절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교구의 사용 정도, 영역의 참여도, 유아들의 수준을 관찰하여 극놀이 영역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장지영·김성혜, 2005).

교사 역할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교사가 극놀이 상황을 관찰하고 다양한 교수전략을 가지고 개입 할 때 유아의 놀이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극놀이나 동극 상황에서 교사는 준비자, 아이디어 제공자, 놀이 참여자, 교사, 공동 극작가, 해설자,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는 이러한 동극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동극 활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선행연구

동극 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에는 유아의 창의성, 언어능력, 수학활동, 비판견, 정서지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창의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임금선(2000)은 주당 3편씩 총 5주간에 걸쳐 동극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극활동이 유아의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증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선영(2005)은 ‘홍부와 놀부’, ‘백설공주’, ‘아기돼지 삼형제’, ‘사이좋게 지내요’, ‘속 마을 우체부’를 가지고 동극활동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극 활동이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등의 창의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한 편, 김미예(2000)는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동극 중심의 통합적 활동을 실시한 결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등 창의성을 의미 있게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들에게 동화를 활용한 동극 중심의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사고를 자유스럽게 하고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새로운 발달단계에 접어들면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친구 사귀기와 같은 긴장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아들이 흥미로워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동화를 활용한 동극 중심의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지도하면 창의성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언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강태희(2007)는 8주 동안 총 8회에 걸쳐 창작 동화를 듣고 극 놀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강태희의 연구에서 극 놀이는 동화를 듣고 배역을 정하여 동화속의 사건이나 상황을 표상하는 놀이 활동이다. 실험 집단 유아들은 통제 집단 유아들보다 동화의 내용을 더욱 주의 깊게 들었으며 극 놀이 진행 과정에서도 장면의 순서를 기억하며

표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언어 이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실험 집단 유아들은 다양하고 많은 단어 및 문장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 표현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정은주(2008)는 매주 금요일을 이용하여 실험집단 유아에게 동화, 동시, 노래, 이야기 꾸미기, 현장학습 등의 사후 활동으로 동극과 창의적 연계활동을 8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극 활동을 한 유아는 역할을 분담하고 협동하여 무대를 계획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 받기 때문에 언어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유아들이 동화, 동시, 노래, 이야기 꾸미기 활동에서 했던 내용을 동극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동극 대사를 상황에 적절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가감해 봄으로써 대사의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황미(2003)는 동극 중심 통합 활동이 유아들의 어휘력, 언어 이해력, 언어 표현력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주 1회씩, 11주간에 걸쳐 동화를 들려주고 5-6일 동안 이야기 나누기를 비롯한 모든 활동 영역에 통합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 동극을 하였다. 비교집단 유아들은 동화를 들려주고 회상하기만 실시했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어휘력 형성과 언어 이해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언어 표현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동극 중심 통합교육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이 향상에 영향을 준 반면, 어휘력과 언어 이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황미는 통합교육을 적용한 후에 동극을 할 때의 유아들의 언어표현은 매우 다양했다고 하면서 동극이 언어능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동극 상황이나 또래와의 의사소통,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현상 등 유아의 섬세한 언어표현, 어휘, 이해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 방법으로 유아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수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선미(2004)는 동극을 통한 수학 활동이 유아들의 수학 개념(분류, 측정 및 서열화, 시간개념, 공간개념) 습득과 수학 접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유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동극을 통한 수학 활동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으며, 동극이 다양한 수학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통합 활동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한편, 반편견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김영희(2007)는 반편견 동화를 통한 동극활동이 4, 5세 유아들의 편견영역인 외모, 장애, 계층, 가족구성, 인종, 모두 편견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세와 5세 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유아들이 동극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동일시와 배역의 특성에 공감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편견에 대해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 하였다.

또한,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에서 최순자(2005)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통합적 동극 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적 동극 활동은 유아의 정서 지능의 하위 요소 중 자기인식 능력, 자기 조절 능력, 타인인식 능력, 타인조절 능력, 자기 동기화 능력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동극 활동에 관한 연구로 김효정(2005)은 교사가 들려준 동화를 듣고 동극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순 동극 활동과 1차 동극 활동 후 동화 관련 연계 활동을 실시한 후 2차 동극 활동을 반복하는 통합적 동극 활동을 비교하여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집단 유아들에게는 통합적 동극 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 유아들에게는 통합적 동극 활동에서 선정된 동화를 이용하여 단순 동극을 실시한 결과 통합적 동극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단순 동극 활동

을 경험한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순 동극 활동이 아닌 다양한 통합적 동극 활동이 개발되어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 동극은 유아의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 증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등 창의성 증진, 수학 개념 습득 및 수학 접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편견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과량반의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하여 실행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연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1) 동화 유치원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화 유치원은 인천광역시 A구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주변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의 특기 교육을 하는 학원이 많다. 동화유치원은 초등학교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실 2개, 교사 업무실, 주방, 화장실, 실외 놀이시설이 있으며, 초등학교 도서관과 운동장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화 유치원에서는 만 5세 2학급을 시간 연장제로 운영하고 있다.

동화 유치원의 교직원 구성은 원장, 원장, 정교사, 보조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장과 원감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직을 하고 있다. 만 5세 2학급은 각각 본 연구자와 2년 경력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보조교사가 각 반에 1명씩 있다. 원아는 만 5세아로 각 반 30명씩으로 모두 근처 아파트나 빌라로부터 도보로 등·하원하고 있다. 동화 유치원의 하루 일과는 8시 30분에 등원하여 1시 30분에 귀가한다.

2) 파랑반

본 연구자가 담임 교사인 파랑반은 만 5세 유아 30명이 재원하고 있는 25평 정도의 크기이며 1층에 있다. 교실의 한쪽 면 전체는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이 보이는 창문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은 2개를 사용하고 있다. 교실 바닥은 원목 마루로 되어있으며, 온돌 난방 시설과 천정형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놀이 영역은 쌓기, 역할, 수조작, 과학, 음률, 언어, 책보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쌓기 놀이 영역이 교실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대집단 활동시 유아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파랑반 유아들은 8시 30분부터 도보로 등원하여 복도에 있는 옷걸이에 옷을 정리하고, 교실로 들어와 원아수첩을 꺼내 달력을 보며 해당 날짜에 스티커를 붙이고 바구니에 넣는다. 등원 후 9시까지 책보기 영역에 비치된 그림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책보기 영역에는 해당 생활주제와 관련된 도서는 정면이 보이는 책꽂이를 이용하여 제시해 주고, 그 외에 유치원에 소장 중인 도서 전체는 두 개 학급이 나누어 책 측면이 보이도록 책꽂이에 꽂아 유아에게 항상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등원 직후나 전이 시간에 책읽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9시가 되면 유아별로 자유선택활동 계획표를 통해 계획을 하고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시작한다. 실내 자유선택활동은 대략 50분 정도 이루어지고,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종료 5분 전쯤 미리 정리시간을 알려준다. 유아들이 쌓기 놀이 영역에 모여 앉으면, 아침 인사 노래를 부르고, 교사와 출석을 부르고, 날짜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날의 소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20분 정도 진행된다.

파랑반의 간식운영은 대집단으로 실시하며, 대략 20분 정도 소요된다. 간식 시간이 끝나면 대집단 활동으로 작업이나 게임, 신체 표현 등의 활동이 30분간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은 동극 활동이 이루어진다. 실외 자유선택활동 시간

이 야외 놀이터에서 20분간 이루어진다. 유아들은 점심 급식을 먹고 시간 연장제 프로그램 활동을 한 후 동화를 듣고, 하루 평가를 하고 귀가하게 된다.

다음은 파랑반의 하루 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파랑반의 하루 일과

시간	활동
08:30-09:00	등원 및 책 읽기
09:00-09:50	실내 자유 선택 활동
09:50-10:00	정리 및 화장실 다녀오기
10:00-10:30	자유선택활동 평가 및 이야기 나누기
10:30-10:50	손 씻기 및 간식
10:50-11:20	대집단 활동(새노래, <u>동극</u> , 게임, 작업, 신체표현 등)
11:20-11:40	실외 자유 선택 활동
11:40-12:00	대집단 또는 개별 활동
12:00-12:40	손 씻기 및 점심
12:40-13:10	시간 연장제 프로그램(체육, 안전교육, 칠교놀이, 명화활동 등)
13:10-13:30	동화듣기, 하루 평가 및 귀가지도

3) 유아들

만 5세 파랑반 유아들은 남아 14명, 여아 16명 모두 30명이다. 유아들의 입학 전 경험을 살펴보면, 유치원(4명), 어린이집(10명), 학원(14명)에 다닌 경향이 있다. 파랑반 30명 중 10명은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8년 3월 14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문제 파악을 위한 동극 활동과 개선을 위한 동극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극에 사용된 그림책의 목록과 선정기준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실험연구의 과정은 McTaggart(1998)가 제시한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연구 사이클 모형 즉, 문제 파악과 변화의 계획 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단계, 이러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반성) 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단계(이용숙, 2005 재인용)의 모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문제 파악 및 변화의 계획

연구자는 2008년 3월 14일 금요일 대집단 활동 시간을 이용해 평상시와 같은 동극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커다란 순무’ 동화를 실물 화상기를 통해 유아들에게 읽어주고, 등장인물과 대사를 회상해보았다. 유아들과 배역을 정하고, 연구자는 미리 배역을 표현할 수 있는 머리띠(강아지, 고양이, 쥐)를 준비하였다. 배역을 맡은 유아들이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나머지 유아들은 관객이 되어 동극을 관람했다. 동극이 끝나고 배우와 관객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연구자는 ‘커다란 순무’ 동극 활동 과정을 비디오 촬영하고, 이를 전사한 후 분석하여 현재 연구자가 진행하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극을 준비할 때 유아들이 극작가, 스텝, 그리고 배우의 역할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록에 제시된 동화 중심 통합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2) 2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계획된 동극 활동의 진행에 앞서 2008년 3월 28일 금요일 대집단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동극’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여 유아들과 동극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동극활동이 교사 주도가 아닌 유아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때에는 대본, 소품, 배우, 관객, 무대 등에 관한 의견과 역할 분담 방법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 7일과 5월 6일에 동화를 들려주고 박현순(2002)의 연구를 토대로 유아들과 함께 극작가, 스텝, 그리고 배우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동극 공연을 하기 전까지 유아들은 동화와 관련된 대집단 활동이나 교구 활동 등을 하면서 동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두 편의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유아들이 동화를 듣고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과 역할을 진행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하여 기록하고, 교구활동이나 결과물은 사진으로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유아면담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동극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재미있는 점,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점 등에 관해 질문하고,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유아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극 활동 결과물에 대해 동료 교사와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전사본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다음 지도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3) 3단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성

2회의 동극 활동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전사본이나 현장노트, 저널, 지도교수와의 면담기록, 동료 교사와의 의견 교환 등을 토대로 동극 활동을 준비하였다.

4) 4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2차로 수정된 계획안을 토대로 6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4편의 동극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때에도 현장 기록, 사진과 비디오 촬영, 면담, 저널, 동료교사의 협의, 지도교수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1) 참여 관찰

참여관찰은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의미한다 (Fetterman, 1991,이용숙, 2005 재인용). 참여의 유형에 대하여 Spradley(1970)는 비참여, 수동적 참여, 중간 수준 참여, 적극적 참여, 완전 참여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교실 수업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완전 참여의 형태로 관찰하였다. 학급의 담임 교사이기도 한 본 연구자는 동극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과 이에 관한 유아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도 관찰이 가능하였다. 관찰한 내용은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2) 사진과 비디오 촬영

기억을 담고 있는 거울에 비유되는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는 언어적 기술과 진술이 제공할 수 없는 현장의 장면, 증거, 정보를 제공해 주고,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해준다(이용숙, 2005). 본 연구는 유아들의 언어적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무대 설치, 의상 및 소품, 동작 표현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인 관찰만으로 현장을 모두 기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동극 공연 상황은 무대 위 배우들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배우들과 관객의 모습까지도 확인하려면 교사의 관찰과 기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본 연구에서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되었다. 연구자와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모습이나 동극 진행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사하고, 필요한 화면은 캡처하여 사진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1차 동극 공연에서 현장 상황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유아의 행동이 동영상 관찰을 통해 발견하도록 도왔다.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서도 동극 공연과 같이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교육 활동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면 교실 수업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유아들의 결과물이나 교구 등은 사진 자료로 기록하여 유아들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의 작품을 사진 자료로 기록하여 그 변화 과정을 기록하였다.

3) 심층 면담

심층 면담 방법은 참여자의 세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김영천, 2006).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조화된 면담보다는 동화를 들려준 직후에 집단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유아들에게 동극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질문들을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

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화로서 면담’ 형식을 취하였다. 유아들이 긴장감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에게는 동극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에게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비디오 촬영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5차 동극 활동에서 처음으로 배우 역할을 하게 된 소극적 유아들도 발견되었는데, 이 유아들이 어떤 이유로 지난 네 차례의 동극 활동에서 배우 역할에 지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4) 저널쓰기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저널쓰기이다(박은혜, 1999). 교사의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는 실행 연구에서는 교사의 저널쓰기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수집 방법이 되었다. 본 연구자의 경우 동극 활동 개선 과정인 1차 동극 활동부터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저널이 2차 동극 활동의 개선을 가져왔다. 저널 쓰기가 6차 동극 활동이 같은 방법이 되풀이 되지 않고 계속 수정 보완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

4. 자료 분석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역할분담 과정과 동극 공연 동영상 파일과 사진, 동화 관련 통합 활동 결과물, 유아 관찰 기록지, 면담 자료, 교사 저널, 현장 약기 등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만 5세 과랑반에서 이루어지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3월에 처음 진행되었던 동극 공연이 녹화된 동영상을 분석하고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 저널과 동영상을 함께 본 동료 교사와의 면담 자료 토대로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와 유아의 역할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6회의 걸친 동극 활동의 전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전사 자료와 면담 자료, 현장 약기, 교사 저널, 사진 자료들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으며 범주화해 나갔다. 모든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와 유아의 역할을 차츰 구분지어 나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극의 진행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교사의 역할 변화를 범주화 하였고, 유아가 맡은 역할에 따라 유아들의 변화 과정을 범주화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동극 활동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파랑반의 평소 동극 활동 모습과 동극 활동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은 3월에 실행했던 첫 번째 동극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이자 파랑반 담임인 교사는 평소에 실시하였던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할 분담’과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계획하였다.

1) 파랑반 동극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교사는 3월 14일 금요일 대집단 활동 시간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극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커다란 순무’ 동화를 실물 화상기를 통해 유아들에게 읽어주고, 등장인물과 대사를 회상해보았다. 유아들과 배역을 정하고, 교사는 미리 등장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머리띠(강아지, 고양이, 쥐)를 준비하였다. 배역을 맡은 유아들이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나머지 유아들은 관객이 되어 동극을 관람했다. 동극이 끝나고 배우와 관객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교사는 ‘커다란 순무’ 동극 활동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전사하고 분석하여 현재 교사가 진행하는 동극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1) 동극 활동의 문제점

① 배우를 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동극 활동 진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정이 바로 무대에 나와 연기를 하게 되는 배우를 선정하는 일이다. 동극이 가능한 동화들의 등장인물 수는 일반적으로 10여명이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1학년 인원은 적어도 25명, 많게는 30명이 된다.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파랑반의 학급 인원수도 30명이다. 따라서 파랑반 학급에서 처음 실시하는 동극 활동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배우를 희망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 먼저 등장인물을 뽑을 거예요, 할아버지 역할을 해 볼 친구 손들어 보세요, (인수만 손을 든다.) 그래 인수가 할아버지 역을 하겠어요, 다음은 할머니 역할을 해 볼 친구 손 들어 보세요,

유아들: 저요! 저요!(많은 유아들이 서로 하겠다고 한다.)

교사: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많네, 어떻게 할까?

유아들: 가위 바위 보

교사: 그래 일어나보세요, 다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손든 여섯명만 일어나보세요, 희영이, 민지, 지원이, 혜원이, 상희, 채연이까지, 두명씩 가위바위보 합니다, 진 사람은 앉아요, 다음은 검등개 해 보겠습니다,

유아들: 저요! 저요! (서로 하겠다고 한다, 무척 소란스럽다.)

교사: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유아들: 저요! 저요! (소란스럽다.)

교사: 안되겠다, (거북이 막대 이름표를 보이며) 그러면

거북이를 뽑아봐야겠다, 여기서 누가 나오는지

선생님은 알 수 있을까?

유아들: 몰라요

교사: (눈을 감고 뽑는다) 누구예요?

유아들: 임채연

교사: 고양이는 누가해볼까?

유아들: 저요 저요

교사: (거북이 이름표를 이용하여 나머지 등장인물도
뽑는다)

유아들: 앙~하고 싶다,

교사: 알아요, 선생님이 동극 이번에 한 번만 한다고
했어요?

유아들: 아뇨

교사: 이번에 하고 나서 또 해 볼꺼예요,

(2008.03.14, 사전 동극)

유아들의 선호도가 높은 동극 활동에서 배우를 하고자 하는 유아들은 극소수의 소극적인 유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저요! 저요!”, “잉~ 나는 안 뽑아 주고...”, “나두 하고 싶은데..” 라는 유아들의 불만이 많게 된다. 이 때문에 1회 동극 실시 후, 평가의 시간을 갖고, 연이어 2차 동극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1회 동극 실시 중 배우가 아닌 유아들은 관객이 되어 동극 감상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때 관객들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활동을 그저 앉아서 지켜보게만 되고, 배우에 선정되지 못한 불만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동극에서 유아들은 주의 집중도 안 되고, 소란스럽고, 앉아있기조차 힘들어하게 된다. 두 번에 걸친 동극활동 이후, 배우를 해 보지 못한 유아들을 위해서 교사는

소품을 역할 영역에 비치하고 자유 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유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② 동극 진행에서의 문제점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들은 동화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스스로 등장과 퇴장이 이루어져야하고, 대사와 동작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동극이 표상활동으로서의 몫을 충분히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화를 들은 후 바로 배역을 정하고 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아들이 동화 내용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해설): 손무가 뽑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인수: (부르지 않는다)

슬기: (나온다)

교사(해설): 할아버지가 부른 다음에 나오세요,

인수: ...

교사(해설): 불러보세요, 인수야

인수:....

(2008.03.14, 사전 동극)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과랑반에서 처음 접하는 동극이기 때문에 교사가 해설을 맡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극의 흐름에 맞추어 등장과 퇴장 하는 것, 배우로써 대사를 하는 것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할아버지 역을 맡은 인수는 해설이 할머니를 부르도록 지시하지만 부르지 않고, 할머니 역을 맡은 슬기는 해설의 말만 듣고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치원 학급에서 동극을 진행하다 보면 흔히 일어나게 된다. 교사는 동극을 진행하기 전 동화를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를 하지만 그 시간만으로 유아들이 동극을 표상활동으로써 자유롭게 진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2) 개선 방안

① 역할 분담

교사는 파랑반에서 3월에 처음 실시했던 동극 활동 중 배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배우로 선정되지 못한 유아들의 불만, 관객들의 무관심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동극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역할을 박현순(2002)의 연구를 토대로 극작가, 스텝, 배우로 나누어 ‘역할 분담’이라는 과정을 갖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한 편의 동극이 진행될 때, 극작가, 스텝, 배우의 역할 중 한 가지를 맡게 된다.

극작가의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대본을 만들게 되고, 이 중 한 명의 유아 혹은 몇몇의 유아가 해설자 역할도 하게 된다. 스텝의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등장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의상과 소품을 만들고, 무대를 꾸미거나, 배경을 그리기도 한다. 배우의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동화 내용과 대본을 기본으로 해서 무대에서 창의적으로 등장인물을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극이 무대에서 진행될 때, 극작가와 스텝은 관객이 되지만 극작가 역할을 한 유아들은 자신의 만든 대본의 대사를 배우가 하고 있고, 스텝 역할을 한 유아들은 자신의 작품을 배우가 착용하고 연기를 하고 있으므로 배우와 함께 무대에 있게 된다.

역할 분담이라는 과정에 관해서는 유아들의 사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텝, 극작가, 배우라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따라서 교사는 1차

동극이 실행되기 전 극작가는 해설과 배우가 이야기할 대본을 만드는 사람이며, 스텝은 소품이나 무대를 꾸미는 사람이며, 배우는 무대에 나와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역할 분담에 관하여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했다.

② 동화 관련 통합 활동

교사는 과랑반에서 3월에 처음 실시했던 동극 활동에서 배우들의 입장과 퇴장의 어려움, 대사나 동작적 표현력의 부족, 줄거리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계획하였다.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은 동화를 소개한 후, 게임이나 신체 표현 등의 대집단 활동과 조작활동, 조형활동, 언어활동 등의 자유선택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화를 들은 후, 동극이 이루어지기까지 1-2주간 유아들은 동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접하면서 친숙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동화에 익숙해진 유아들은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 오르지 않아도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과 평가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

본 장에서는 6회에 걸친 동극 활동 개선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파랑반 담임 교사인 본 연구자는 동극 활동 개선 과정에서 역할 제시자, 역할 시범자, 역할 참여자, 역할 지지자, 소극적 유아 지원자,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로 역할을 변화해 나갔다.

1) 1차 동극 활동- 역할 제시자로서의 교사

4월 7일 금요일에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를 읽어주고 책 표지 퍼즐하기(조작활동), 작은 책 만들기(언어활동), 한스에게 편지 쓰기(언어활동), 내가 작가라면...(토의활동), 누구의 똥일까?(게임활동)를 실시하였다. (부록 참조)

다음은 교사가 유아들과 함께 역할 분담을 통해 정해진 극작가와 스텝 역할을 도와주는 과정과 역할 분담 과정 중 배우를 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1) 극작가 역할 처음으로 경험시키기

역할 분담이라는 과정에 대해 유아들과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극작가라는 단어부터 유아들에게 낯설었다. 극작가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유아들을 돕기 위해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대본 만들기에 참여했다. 다음은 처음 대본을 만드는 사례이다.

교사는 실내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언어영역에서 극작가를 지원한 유아들과 함께 대본 만들기를 시작했다. 교사가 대본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 지 묻자 유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교사가 그림책의 첫 장을 펴며 어떤 내용인지를 묻자 유아들은 책을 읽기만 한다. 교사가 시범을 보이기자 '해설이 어느 날 햇별을 짝러 두더지가 나왔는데 갑자기 똥이 머리 위에 날아왔어요.' 라고 이야기 하자, 희영이가 그대로 받아 적는다. 다른 유아들은 웅성거리기만하고 관심이 없다.

(2008.04.08, 대본 만들기)

위의 사례를 통해 유아들은 대본이 그림책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해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며, 등장인물의 대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교사가 도입한 이야기를 글을 쓸 줄 아는 유아가 그대로 받아 적기에도 힘들어했다. 그 이후에는 교사가 대신 연필을 잡고 적기 시작했지만 유아들은 대본 만들기에 흥미를 잃었다.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본 만들기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본 만들기에 흥미가 없는 대부분의 유아들의 관심은 다른 영역의 놀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극작가를 지원하긴 했지만 지원한 유아 모두가 대본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흥미도 없는 상황에서 대본을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2차 동극 활동에서는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대본 만들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2) 스텝 역할을 처음으로 경험시키기

교사는 유아들이 늘 조형영역에서 만들기와 꾸미기를 하기 때문에 소품 제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등장인물을

표현해 줄 소품을 스텝 유아들만이 등장인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창안해서 제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은 역할 분담 중 스텝을 맡을 유아를 정하고 해야 할 작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다.

소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9명의 유아들이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이름을 적어 유아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중략-

교사: 스텝 친구들은 목요일 조형놀이방에서 등장인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다른 친구들은 목요일 선택놀이시간에 스텝에게 조형놀이방을 양보해주세요, 하루에 완성되지 않으면 다음날 까지 만들 수 있어요, 스텝 친구들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만드세요, 스텝 친구들끼리 누가 무엇을 만들지 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함께 정할까요?

유아들: 아뇨, 우리들끼리 정할게요.

교사: 그러면 하얀 종이에 누구는 무엇을 만들지 적어서 선생님한테 가져올 수 있겠어요?

유아들: 네

교사: 그래요, 목요일에는 누가 무엇을 만들지 정하세요.

(2008.04.07, 1차 동극 역할분담)

실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가은이가 와서 흰 종이를 달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동극 역할 분담시 이야기 했던 소품 담당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잠시 후, 가은이가 종이에 유아들의 이름을 한 줄로 적고, 몇몇 유아만 만들고 싶은 소품을 적은 종이를 들고 왔다. 하지만 선택활동이 끝날 무렵 가은이는

매우 지친 표정을 하며 교사에게 와서 스텝 친구들이
소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2008.04.10, 자유 선택활동시간)

소품 제작에 참여할 스텝 유아들을 선정했지만 등장인물별 소품을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지에 관한 세부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극을 올리기까지 등장인물을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은 몇 가지 제작되지 않았다. 목요일에도 소품 담당 유아들은 조형 영역에서 소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자유선택활동을 하는 유아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업시간 중에 제시되는 작업이나 선택활동 시간에 자신들의 흥미에 의해 만들거나 꾸미기를 하던 유아들에게 등장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을 아무런 아이디어나 계획없이 제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2차 동극 활동에서는 각 등장인물에게 필요한 소품과 제작 방법까지도 협의하고, 담당할 유아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3) 역할 분담 과정에서 배우 정하기를 처음으로 경험시키기

역할 분담 과정 중 극작가와 스텝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배우를 정하게 되었다. 다음은 동극 활동 개선 방안으로 구안한 역할 분담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배우를 정하는 과정이다.

교사: '누가 내 머리에 똥 싼어?' 에는 모두 등장인물이
몇 명이예요?

유아들: 10명이요,

교사: 파리가 두 마리예요, 그럼 모두 몇 명일까?

유아들: 11명이요,

가은: 나머지 다 배우하면 돼요,

교사: 그래요, 스텝이나 대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요.

파랑반 30명의 유아 중 스텝 9명과 극작가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1명의 유아가 결석을 해서 11명이 배우를
하게 되었다. 교사가 등장인물을 불러주면 유아들이 원하는
등장인물을 지원한다. 중에서 지원한다. 지원한 유아의
이름을 등장인물 옆에 적어둔다. 한 역할에 두 명이 지원
하는 일이 없어 쉽게 배역을 정한다.

(2008.04.07, 1차 동극 역할 분담)

교사는 역할 분담을 진행하기 전 가장 염려하던 부분이 배우 역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배우를 희망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3월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커다란 순
마’ 동극 활동에서와 달리 유아들은 역할 분담 과정 중 배우 역할만을
지원하거나 배우 역할을 맡지 못해 불만을 포로하지도 않았다. 유아들의
이러한 변화는 사전에 이루어졌던 역할 분담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 유아들이 스텝과 극작가, 배우 모두에게서 매력적인 부분을 찾았고,
배우 역할 이외의 역할에서도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운데가 ‘나머지 다’라고 한 것은 스텝과
극작가의 역할을 먼저 정했고, 남아있는 유아 모두가 배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역할이 동극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 정하기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2) 2차 동극 활동- 역할 시범자로서의 교사

5월 6일 화요일에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책 표지 퍼즐하기(조작활동), 검피 아저씨 베에 타기(조형활동), 검피 아저씨는 왜 그랬을까?(토의 활동), 동물 흉내내기(신체표현활동)를 실시하였다.

1차 동극 진행시 대본 만들기는 유아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교사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소품도 거의 제작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이번 2회 동극 활동에서는 극작가와 스텝을 과량반 전체 유아가 경험해 보기로 하였다.

(1) 전체 유아들과 함께 대본 만들기

1차 동극 진행시 극작가를 지원한 일부 유아만이 자유 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해 대본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결과, 동극에서 대본의 역할이나 작성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2차 동극 활동에서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대그룹 활동 시간 대본을 만들었다. 다음은 교사가 화이트 보드판을 이용하여 대본을 받아 적어가며 전체 유아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며 대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교사: 이제부터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대본을 만들어 볼
게예요, 대본을 만들 때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 ‘토끼가 자기랑 같이 놀자고 이야기 했습
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설자 “토끼가 나왔습
니다,” 토끼 “나랑 같이 놀자” 라고 해설이 하는
말이 있고, 각각의 인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대본에서는 제일 먼저 누가
이야기 할까요?

유아들: 해설이요,

교사: 해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아들: 이 아저씨가 바로 검피 아저씨야,
(교사는 내용을 화이트 보드에 적는다.)
교사: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나요
유아들: 아이들어요,
교사: 아이가 몇 명 나와요?
유아들: 2명어요,
교사: 아이 1하고 아이 2라고 할게요,, 같이 이야기
합니다. 뭐라구 이야기해요?
교사와 유아 함께: 저희도 태워 주시면 안돼요?
교사: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아들: 싸우지만 않는다면,
교사: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유아들: 토끼
교사: 토끼가 등장했어요
유아들: 아저씨 저도 태워주시면 안돼요?
유아들: (검피가 하는 대사) 깡충거리지만 않는다면
(2008.05.07. 2차 동극 대본 작성)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사와 전체 유아들이 함께 대본을 제작하는 과정의 장점은 동화를 다 함께 회상함으로써 배우가 될 유아와 관객 모두가 내용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복되는 부분을 다 함께 소리 내어 이야기해 봄으로써 배우가 될 유아들은 대사 연습을 할 수 있고 관객이 될 유아들은 배우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사 표현력이 좋은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에게 모델링의 기회를 주게 된다. 하지만 대그룹 활동 특성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만이 주도하게 되어 소극적인 유아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한 2차 동극 대본 만들기가 유아들에게 극작가 역할의 시범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3차 동극 활동부터는 역할 분담에서 정해진 극작가 역할을 지원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 전체 유아와 소품 제작에 관해 협의하기

1차 동극 활동에서 스텝 유아들이 어떤 소품을 어떻게 제작할지 몰라 소품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2차 동극 활동에서는 전체 유아가 소품 제작에 참여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협력하여 소품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즉, 무대 만들기, 배경 꾸미기, 소품 만들기를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 등장인물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소품을 정하고, 이를 담당할 유아를 선정했다. 한 가지 소품 제작에 다수의 유아들이 협력하여 완성할 수도 있고, 혼자 참여할 수도 있었다. 만약 정해진 소품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제작 방법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다음은 등장인물 중 양을 표현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교사가 등장인물 중 양의 소품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묻자 유아들은 양털 옷을 만들자고 했다. 제작 방법에 대해 묻자 하얀 종이를 연필로 말아 양의 털을 표현하고 그것을 역할 놀이방에 있는 조끼에 붙이자고 했다. 교사가 혼자 만들 수 있을지를 묻자 유아들이 여럿이 도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양털 옷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유아들을 지원 받아 8명의 유아가 협력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

(2008.05.19, 소품 담당 정하기)

위의 사례와 같이 학급 전체 유아가 참여하는 방법의 장점으로서는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소품 선정과 제작 방법까지 모두의 합의와 제안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작에 있어서도 만들기와 꾸미기에 소극적인 유아들도 적극적인 유아들과 협력함으로써 만들기와 꾸미기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리더 역할을 하는 유아들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대본과 소품 등을 모두 대그룹으로 진행하다보니 동극 준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고, 자칫 교사 주도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늘 이렇게 전체 유아와 협의하여 소품을 제작하게 되면 스텝 유아들의 자율성이 결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차 동극 활동에서는 등장인물별 필요 소품은 전체 유아가 함께 정하고, 제작에 관한 아이디어는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하도록 계획하였다.

(3)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배우 선정하기

1차 동극 활동에서는 역할 분담 과정에서 극작가, 스텝, 배우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기 때문에 배우 선정이 원만했지만, 2차 동극 활동에서는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배우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다. 그 이유는 1차 동극 활동에서 유아들이 극작가와 스텝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동극 활동에서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함께 대본을 만들고 소품 만들기를 했고 배우 선정도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2차 동극 공연에 필요한 배우 인원인 13명을 파랑반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3월에 처음 실시했던 동극이었던 ‘커다란 순무’에서와 같은 배우 역할 선정의 어려움이 생겼다.

다만 3월 동극과 달리 유아들마다 등장인물 중 선호하는 역할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과랑반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배우 역할을 선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배우를 정한다는 교사의 발언과 동시에 유아들은 자신이 배우하기를 희망하는 등장인물을 반복적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교사의 침묵과 무관심에도 유아들의 외침은 1분여를 지속했다.
(중략)
교사가 화이트보드에 유아들과 함께 등장인물을 순서대로 모두 적고, 해당 등장인물을 희망하는 유아들의 이름을 적었다. 하나의 등장인물에 여러 명의 유아들이 지원한 경우에는 양보하는 유아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했다. 이에 소요된 시간은 15분을 넘게 되었다.

(2008.05.30, 배역 정하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3월 처음 실시했던 동극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유아들만이 배우로 선정되었고, 배우 역할에 선정되지 못한 유아들은 불만을 가지고 관객이 되었다. 학급 전체 유아 중 일부 유아들만을 배우 역할로 선정하는 과정은 이번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였다. 따라서 다음 동극 활동에서는 1차에서와 같이 극작가, 스텝, 배우로 역할 분담을 하고, 각각의 세부 역할까지 정하도록 하였다.

3) 3차 동극 활동- 역할 참여자로서의 교사

6월 2일 월요일에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동화를 읽어주고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토의활동), 책 표지 퍼즐하기(조작활동), 흉내내는 말 책 만들기(언어활동), 팔 발매기(게임활동), 점핑클레이로 등장인물 만들기(조형활동)를 실시하였다.

1차 동극에서 극작가 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대본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점, 스텝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지 않아 소품 제작이 어려웠던 점들과 2차에서는 교사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극작가와 스텝의 역할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배우 정하기의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점 등을 보완하여 3차 동극 활동에서 교사는 유아들과 극작가, 스텝 배우로 역할 분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해 나갔다.

(1) 극작가와 함께 대본 만들기

2차 동극 활동에서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대본 만들기를 함께 했다. 이를 대본 만들기 시범의 기회로 삼아 3차 동극 활동부터는 역할 분담에 따라 극작가를 지원한 유아들만 교사와 함께 대본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1차 동극 활동시 대본 만들기에서 유아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교사가 그것을 받아 적기에는 속도가 버거웠고, 교사가 다 쓰기를 기다리던 유아들도 지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본 작성시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아들의 이야기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컴퓨터 영역에서 교사와 함께 소그룹으로 진행된 대본 만들기 과정 중 처음 시작 과정이다.

교사가 처음에 해설이 하는 말을 묻자 유아들은 아무 반응이 없다,
다시 교사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동화의 시작에 대해 묻자
지원이가 할머니가 밭에서 풀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교사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할머니가~' 를 반복하자
지원이는 "풀" 이라고만 대답한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 할머니가 어디에서 풀을 발견했냐고 질문하자
지원이는 '밭에서' 라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다시 교사가
할머니가 밭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질문하자 태현이가 '
뽑고' 라고만 대답한다.

(2008.06.02, 3차 등극 대본 만들기)

소그룹으로 모인 유아들은 해설이나 등장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가 대사를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지만 지원이는 "풀" "밭에서", 태현이는 "뽑고"와 같이 단어 나열식으로 이야기할 뿐이었다. 다음 상황에서 교사가 유아들이 한 이야기를 구성해 '할머니가 밭에서 풀을 뽑고 계셨어요'라고 이야기한 다음에서야 태현이는 "그 때 호랑이가 다가왔어요."라는 완전한 문장 구사가 되었다. 다음은 호랑이가 나타난 다음부터의 상황을 대본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교사: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도균: 내기를 하자

교사: 할머니가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민: 호랑이가...

도균: 호랑이가 내기를 하자고 했는데...

교사: 호랑이가 내기를 하자고 하기 전에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유아들:...

교사: 호랑이가 “어흥 배가 고프니, 내가 널 잡아먹겠다.” 고
하자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채현: 잡초 뽑기

교사: 할머니가 잡초 뽑기 내기를 하자구 했어요?

유아들: 내가 이기면 할머니를 잡아먹겠다

(2008.06.02, 3차 동극 대본 만들기)

위의 사례를 볼 때 유아들은 호랑이와 할머니가 팔발 매기 내기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한 말을 이야기해보자는 교사의 질문에 유아들은 할머니의 대사인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내기’와 관련하여 ‘잡초 뽑기’, ‘이기면...’등의 이야기만 했다. 또한 유아들은 배우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즉, 호랑이와 할머니의 대화의 순서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교사가 호랑이가 잡아먹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한 말을 묻자 채현이는 “잡초 뽑기”라고 대답했고 이에 교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유아들에게 질문을 해서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유도했다. 다음은 호랑이가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으로 교사의 유도로 유아들이 등장인물들의 대화의 흐름을 알아가고 있는 사례이다.

교사: 내기를 하기 전에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있었을까?

유아들: 아뇨

교사: 호랑아~(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도균: 호랑아 살려다오

교사: 그래요, 이제 잡초 뽑기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태현: 호랑이가 이겼어요
 채현: 할머니가 조금 뽑는 동안 호랑이가 더 많이 뽑았어요
 교사: 더 많이 뽑아서 어떻게 됐어요?
 유아들: 이겼어요
 교사: 호랑이가 뭐라 그랬어요?
 태현: 내가 널 잡아먹겠다.
 교사: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채현: 겨울 때 팔죽을 해 줄게
 교사: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도균: 그래

(2008.06.02, 3차 동극 대본 만들기)

대본 만들기 처음 시작할 때 교사의 “처음에 해설이 뭐라고 했어요?”, “동화가 어떻게 시작됐어요”라는 막연한 질문보다는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유아들로 하여금 대화의 순서나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며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음은 교사와 유아가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과정이다.

교사: 이제 해설이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겨울이~
 유아들: 겨울이 됐어요,
 교사: 그날 밤~
 태현: 그날 밤 호랑이가 할머니집에 다가왔어요,
 교사: 호랑이가 먼저 나왔어요?
 도균: 알밤
 교사: 할머니가 먼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상희: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도균: 그 때 밤이 나타났어요,

교사: 알밤이 어떻게 왔지요?
 태현: 대굴 대굴
 교사: 그 때 알밤이 대굴 대굴 나타났어요.
 도균: 할머니 왜 울어요?
 교사: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태현: 할머니 팔죽을 주면 못 잡아먹게 해 줄게요.
 교사: 그런데 “할머니 왜 울어요?” 는 누가 한 말일까?
 유아들: 알밤이
 교사: 그래 알밤이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
 채현: 무서운 호랑이가 날 잡아 먹으려고구해
 교사: 할머니는
 유아들: 알밤에게 팔죽을 주었어요.

(2008.06.02, 3차 동극 대본 만들기)

위의 사례에서 유아들은 3차 동극 대본 만들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교사의 “그날 밤~” “할머니가 먼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는~” 등의 제시어를 받아들여 등장인물들이 구사해야 하는 대사를 “할머니 왜 울어요?” “팔죽을 주며 못 잡아먹게 해 줄게요.” 등과 같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교사가 대사의 처음을 시작해 주거나, 주요 단어를 암시해 주는 등의 개입이 유아들이 대본을 만들기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할머니와 알밤의 대화 순서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현상도 두 번째 등장인물인 자라의 등장부터는 해소되어가고 있었다. 다음은 자라가 등장하는 장면의 대본 만들기 사례이다.

교사: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태현: 자라
교사: 자라는 어떻게 왔어요?
유아들: 찰박찰박
교사: 그 때~
유아들: 그 때 찰박찰박 자라가 왔어요
교사: 자라가~
유아들: 할머니 왜 울어요?
유아들: 호랑이가 날 잡아 먹으려고 온다
유아들: 팔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 먹게 해 드릴게요,
유아: (진행을 멈춘다)
교사: 다음에 누가 이야기할까?
유아: (아무 반응이 없다)
교사: 해설이 할머니는~
유아들: 할머니는 자라에게 팔죽 한 그릇을 주었어요.
(2008.06.02, 3차 동극 대본 만들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제 유아들은 누구 하나를 지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 대본을 만들게 되었다. 유아들은 배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었다. 다만 해설이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교사가 도와주었다.

(2) 스텝이 만들 세부적인 소품 협의하기

1차 동극 활동에서는 역할 분담시 소품에 관한 협의 없이 스텝 유아들만이 소품 제작의 책임을 도맡았다. 때문에 사전 경험이 없는 스텝 유아들은 등장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소품을 제작해야 할 지 몰라

참여가 저조했고, 완성된 소품도 몇 개에 불과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동극 활동시에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등장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을 협의하고 한 가지 소품에 여러 명의 유아가 협력하여 제작하는 경험도 해보았다. 1차와 2차 스텝 경험을 바탕으로 3차 동극 활동에서는 역할 분담 과정에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등장인물별 소품을 협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소품을 제작하기를 희망하는 유아를 스텝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동화를 들은 후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에 등장하는 자라, 똥, 송곳, 절구 명석을 표현해 줄 소품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교사: 자라는 무엇을 만들어서 표현해 줄까요?
태현: 벌이요,
인수: 입이요,
도균: (자신의 손을 등에 대고 허리를 구부리며) 등에 있는 거요,
교사: 자라의 등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은석: 등껍질이요,
교사: 그래요, 자라는 등껍질을 만들어주면 재밌겠다, 개똥은 무엇을 만들어 표현해줄까요?
태현: 개똥은 갈색이예요,
민형: 미끄러지는거요,
교사: 미끌 미끌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현석: 기름이요,
인수: 물이요,
교사: 너희가 사용한 재료중에서 미끌 미끌한게 뭐가 있을까?
태현: 비닐봉지요,
교사: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개똥을 맡은 친구가

입을 수 있는 비닐옷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중략-

교사: 절구는 무엇을 만들어 표현해 줄까요?

도균: 나무!

희영: 나무 나이테를 해 줘요.

교사: 나무 나이테 옷을 만들어 주면 절구통 같겠다.

왜냐하면 절구는 뭘로 만들었어요?

유아들: 나무요.

(2008.06.02, 3차 동극 역할 분담)

전체 유아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하여 소품을 정하고, 그것을 제작하기를 희망하는 유아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태 제작하게 되니 소품은 일반 동극에서 사용하는 머리띠나 목걸이 등과 같이 정형화된 것들 보다는 창의적인 소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유아들이 동물 소품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동물 얼굴을 제작하기 마련이지만, 도균이는 자라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동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등을 제안하였고, 교사는 그것의 명칭인 ‘등껍질’을 유도하고, 등껍질을 제작하기로 했다. 호랑이가 개똥을 밟아 미끄러진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민형이는 미끄러운 재료를 제안하였고, 태현이가 비닐봉지를 제안하여 비닐로 개똥 옷을 만들게 되었다. 유아들은 등장인물의 생김새 뿐만 아니라 원재료에도 관심이 있었다. 절구를 표현하고자 도균이는 나무를, 희영이는 나무 나이테를 제시하였다. 교사는 다른 유아들을 위해 절구가 나무를 이용해 만들어 진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등장인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소품과 그 제작 방법까지 의논하니, 유아들의 흥미나 발달 수준을 알 수 있었고, 막연히 등장인물별 소품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보다 스텝 역할에 대한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3) 표현력이 부족한 배우 돕기

1차, 2차 동극에 비해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대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역할 분담시 소품과 무대 관련해서는 자세한 협의가 있었고, 대본도 교사와 유아가 함께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으나, 배우들의 경우 완성된 대본을 보고 한 두 번 자율적으로 읽는 것 이외에는 준비의 과정이 전혀 없어서인지 대사나 동작의 표현도 되지 않았다. 다음은 호랑이와 할머니가 팔 발매기 내기를 하고 그 결과 호랑이가 이긴 상황을 배우 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공연하는 사례이다.

태현: 호랑이가 더 많이 뽑았어요,
(상희와 인수가 아무런 반응 없이 잡초 뽑는 시늉을
계속하자)

관객유아들: 그만해~ 호랑이 승!

교사: 호랑이가 이겼습니다.

(상희와 인수 모두 그대로 서있자)

관객유아들: 이제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는다고 해야지!

인수: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가 할머니를 잡아먹겠다.

상희: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겨울 때 팔죽을 해 줄게

(2008.06.05, 3차 동극)

호랑이 역을 맡은 인수, 할머니 역을 맡은 상희는 물론 해설을 맡은 태현이까지도 극의 진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상희와 인수는 태현이의 호랑이가 더 많이 뽑았다는 해설에도 계속해서 잡초를 뽑는 시늉을 하자 관객들이 호랑이의 승리를 이야기해 주었고, 교사도 해설의 뒤편 ‘호랑이가 이겼습니다.’라고 개입하였다. 그 후에도 인수와 상희는 관객석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각자의 정해진

대사만 이야기했다. 이에 교사는 배우들이 대본의 대사를 기본으로 자신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동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다음은 교사가 개입하여 배우들의 표현을 돕는 상황이다. 다음 장면은 호랑이가 알밤을 비롯해서 자라, 똥, 송곳, 절구, 멍석 등에게 연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아들이 동화 장면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칫 소란스럽게 장면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해설: 그날 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인수: 할멈 방이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지

(상희가 머뭇거리자)

관객 유아들: 부엌 부엌

상희: 부엌 안에 들어가 보렴,

(호랑이 역을 맡은 인수가 구석으로 가자 알밤 등의 역을 맡은 배우들이 인수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히며 우왕좌왕한다. 교사가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의 등장순서를 유도하지만 배우들은 한꺼번에 모두 나와 인수 주위를 맴돈다.)

교사: 밤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부터 선생님이 해설을 할게요, 상희 다시 나오세요, 그날 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인수: 할멈, 방이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지

상희: 부엌에 가서 불을 가져와

교사: 상희는 들어가고, 인수는 계속 있으세요, 호랑이가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알밤이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찔렸어요,

(인수가 아궁이를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자, 유나가 머리로 인수의 몸을 들이받자 인수는 눈을 움켜

주는 시늉을 한다.) 호랑이 뭐라고 할까요?

인수: 앓! 따가워

교사: 호랑이가 눈을 씻으려고 물독에 갔어요, 그런데 자라
가 호랑이 손을 깨물었어요. (수현이가 인수의 손을 무는
시늉을 한다.) 호랑이가 나가려다가 개똥을 밟아서 미끄러
졌어요. (영한이가 인수 앞에 눕자 인수가 비닐옷을 밟아
미끄러지는 시늉을 한다.) 미끄러지다가 송곳에 엉덩이를
찔렸어요. (정영이가 인수의 엉덩이를 찌른다.) 호랑이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절구가 호랑이 머리위로 팡하고 떨어
졌어요. (혜원이가 경충 뛰자 인수는 넘어지는 시늉을
한다.) 마당에 있던 멍석에 호랑이가 미끌어졌습니다.
(민지가 눕자 민지 다리 위에 인수가 눕는다.)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지게에 싣고
(지민이가 나와 허리를 숙여 인수를 업는 시늉을 하고
돌아다닌다.) 한강으로 가서 호랑이를 바뜨렸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에 팔죽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2008.06.05. 3차 동극)

위 사례에서 교사는 배우들이 극의 흐름에 따라 대화와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호랑이가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알밤이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찔렸어요’라고 동화의 장면을 묘사하듯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알밤역인 유나는 인수에게 달려들었고, 인수는 눈을 움켜쥐는 시늉을 했다. 인수의 대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는 대본 작성시처럼 ‘호랑이 뭐라고 할까요?’라고 유도 질문을 했고, 인수는 이에 대응하는 ‘앓! 따가워’라는 대사를 했다. 그 이후부터 교사의 묘사에 배우들은 무대에 눕는다거나, 미끄러지거나, 엉덩이를 찌르거나, 경충 뛰는 등의 흥내를 내며 동극을 공연하게 되었다.

4) 4차 동극 활동- 역할 지지자로서의 교사

6월 10일 화요일 ‘내 꼬리를 돌려주세요’ 동화를 읽어준 후, 여우 마리오네뜨 만들기(조형활동), 연관있는 것 찾기(게임활동), 책 표지 퍼즐하기(조작활동), 내가 만약 할머니였다면...(토의활동)을 실시하였다.

교사는 4차 동극 활동에서 3차 동극 활동과 동일하게 전체 유아들과 등장인물에 따른 소품을 정한 후, 극작가와 스텝, 배우로 역할 분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 하였다.

(1) 극작가 북돋아주기

4차 동극 역할 분담을 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극작가 역할에 많은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스텝이나 배우 역할보다 눈에 띄지 않고, 자칫 지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아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극작가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왜 극작가가 좋아요?” 라는 질문에 유아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 해설하고 싶어서요(희영)
- 읽으니까 좋아요(상희)
- 똑똑해지려구, 선생님이 글씨 쓰는 거 보구 어려운 글을
알 수 있으니까(채현)
- 생각을 잘 해서 공부를 잘 하려구(세연)
- 생각주머니가 커져요(유나)
- 시험 잘 보려구(상희)
- 글만 쓰고 대본하는 거 다 알게 하니까(인수)

(2008.06.10, 면담)

위의 면담 결과를 볼 때 유아들은 교사와 컴퓨터영역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교사가 적어주고, 함께 읽고 정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학구적으로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유아들로 하여금 극작가 역을 매력적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유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 누가 누가 해볼까?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유아들은 눈을 감고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극작가, 스텝, 배우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해볼까?

-중략-

나는 생각주머니가 크니까 멋진 대본을 만드는
극작가를 할까? 동화를 쓴 작가보다 더 재미있는
대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06.10, 4차 동극 역할 분담)

(2) 스텝들의 소품 제작 지원하기

1차 소품 제작에서 스텝들이 등장인물을 위해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2차 소품 제작은 전체 유아가 소품 제작에 대해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완성했다. 3차 동극 활동에서 진행된 소품 제작에서는 교사는 역할 분담을 해서 정해진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을 도와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4차 소품 제작에서 교사는 직접 참여보다는 유아가 요구하는 준비물을 구비나 구멍 뚫기, 고무줄 연결하기 등 유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지원하는 일에 힘썼다. 다음은 스텝 유아들이 조형 영역에서 소품을 제작하는 상황이다.

보경: 선생님 파란색 큰 종이 주세요,
교사: 무엇에 쓸거니?
보경: 시냇물 옷 만들려구요
교사: 그래, 그럼 스케치북 크기 정도면 될까? 아니면 더
큰 크기로 줄까?
보경: 스케치북 정도면 돼요,

-중략-

윤정: 구멍 뚫어 주세요,
교사: 그래, 무엇을 만들거니?
윤정: 들판이요, 목에 거는 옷이에요,

(2008.06.11, 실내자유선택활동)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아들은 이제 교사의 도움 없이 조형 영역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거나, ‘선생님 파란색 큰 종이 주세요.’ ‘구멍 뚫어 주세요’ 특별한 재료나 기술만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등장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을 스스로 제작함으로써 스텝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배우의 표현력 증진시키기

3차 동극시 배우들의 특징이 잘 살아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전체 유아들과 함께 등장인물별 배우를 정할 때, 각 등장인물의 특징까지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극중 인물 표현에 대하여 전체 유아들과 협의한 내용이다.

교사: 여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아들: 네발로 걸어다녀요, 울음 소리를 내요,
교사: 어떤 울음소리?

유아들: 히...

교사: 그래,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표현할까?

유아들: 혼내는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교사: 암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아들: 음메 소리를 내요,

교사: 들판은 어떻게 표현할까?

유아들!...

교사: 동화책 그림에서 들판은 어떤 모습이었니?

유아들: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교사: 그래, 바람이 불 때 움직이는 들판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시냇물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아들: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움직여요,

교사: 아가씨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아들: 예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교사: 보따리 장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유아들: 아저씨 목소리처럼 이야기해요,

교사: 암탉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아들: 꼬꼬덕 하고 울어요,

교사: 마지막으로 방앗간 주인은 어떻게 표현할까?

유아들: 착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2008.06.10. 4차 동극 역할 분담)

유아들은 교사의 ‘~는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질문에 등장인물의 특징을 잘 살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혼내는 목소리, 보따리 장수의 아저씨 목소리, 방앗간 주인의 착한 목소리는 일반화된 등장 인물의 특징은 아니기 때문이다. ‘꼬리를 돌려 주세요’ 내용 속의 할머니는 여우를 혼내고 있었고, 보따리 장수의 모습은 아저씨로 묘사되어 있었고, 방앗간 주인은 여우를

위해 곡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유아들은 방앗간 주인을 착한 목소리로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유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인물 표현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바람부는 들판의 모습이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모습을 협의했지만 과연 이런 모습을 유아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실제 동극 상황에서 이런 모호함이 더욱 창의적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은 이런 협의를 바탕으로 배우들이 동극을 공연하는 장면이다.

-여우가 꼬리를 되찾기 위해 암소를 찾아가 할머니 우유를 얻는 장면이다.-

영호: 안돼, 내가 먹을 풀을 가져오면 내가 우유를 주마.

(이야기를 하고 퇴장한다.)

(들판 역을 맡은 영한이 등장하여 누워서 팔을 휘저어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을 표현한다.)

서연: 여우는 들판으로 갔어요.

교사: (영한의 모습을 보며) 우와! 너무 잘한다.

도균: (들판에게 다가가) 저에게 풀을 주세요.

영한: 안돼, 시냇가에 가서 물을 가져오면 풀을 주마.

서연: 여우는 시냇가에 갔어요.

(시냇물 역을 맡은 지민이가 등장하여 늪자, 관객들이 웃는다.)

(2008.06.17. 4차 동극)

위의 장면에서 들판 역을 맡은 영한이는 앞서 배우가 퇴장하자 바로 등장하여 들판을 표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역할 분담시 전체 유아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의 모습을 표현하면 좋겠다는 협의만 했을 뿐 누워서 팔을 흔들다는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영한이의 몫이었다. 평소 표현이

적극적이지 못한 영한이의 이런 모습은 동극 상황 안에서 잠재력을 발휘한 것이라 하겠다. 시냇물 역을 맡은 지민이는 바닥에 누워 흐르는 시냇물을 표현하고 있었다. 전체 유아와의 합의가 자칫 배우들에게 정형화된 모습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었다.

5) 5차 동극 활동- 소극적 유아 지원자로서의 교사

6월 19일 목요일에 ‘무지개 물고기’ 동화를 읽어준 후, OHP종이에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조형활동), 무지개 물고기에게 편지쓰기(언어활동), 무지개 물고기 바느질하기(조작활동), 책 표지 퍼즐하기(조작활동), 반짝이 비늘 나눠주기(게임활동)를 실시했다.

5차 동극 활동에서 배우 역할은 1차에서 4차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유아들이 하게 되었고, 다음은 교사가 이들 유아들에게 배우 역할을 제공하게 되는 과정과 배우 역할을 돕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 소극적 유아들에게 배우 역할 제공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네 차례의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과랑반 유아들은 극작가와 스텝, 배우 중에서 자신의 원하는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각자의 특기나 흥미를 고려하여 역할을 선택하였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선택한 역할을 누가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4차 동극 활동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도 배우를 선택하지 않은 유아들이 발견되었다. 전체 30명의 유아 중 7명의 유아가 이에 해당되었다. 교사는 실외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이들을 면담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연-배우하기 싫어서요
다현-배우하기 싫어서요
보경-구경하는게 더 재미있어요
가은-엄마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어요
세연-앞에서 배우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희영-배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윤정-그냥 하기 싫어서요

(2008. 06.20. 개별 면담)

면담 유아들의 학급 담임인 교사는 그간의 유치원 생활을 토대로 위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배우하기 싫어서요’라고 이야기한 다연이와 다현이는 쌍둥이 자매로 두 명 모두 차분한 성격으로 타인 앞에서 자기 표현하기를 꺼려한다. 그리기와 만들기를 매우 좋아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한다. 이 때문에 동극 활동에서 계속해서 스텝 역할을 지원하였다. 다연이와 다현이는 여타의 쌍둥이 자매와는 다르게 폭넓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내 자유선택활동시간에도 둘이 함께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 때문에 배우를 하기 싫다는 똑같은 면담 결과가 서로를 모방하거나 의지해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경하는게 더 재미있어요’라고 이야기한 보경이는 활발한 성격의 유아로 만들기와 꾸미기를 좋아해서, 실내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조형영역이나 종이접기 코너방에서 자주 활동한다. 때문에 스텝에 더 많은 흥미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엄마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가은이는 활발한 성격의 유아는 아니지만,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리있게 잘 표현하고, 자유선택활동시간에는 친구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활동하는 유아

다. 그런데 이런 면담 결과가 나온 것은 배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우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다’고 이야기한 세연이는 외면적으로 드러나게 활달함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아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놀이하는 경우가 많다. 세연이는 완벽히 준비된 배우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한 희영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제관련 발표나 의견을 제안할 때 조리있게 이야기를 잘한다. 실내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친구들과 교구 활동하기를 즐기며, 어려움이 있는 동료들 잘 도와준다. 하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이런 희영이가 배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자신감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냥 하기 싫다’고 이야기한 윤정이는 어머님도 걱정하실 정도로 소극적인 성격으로 교사와 개별적인 대화에서도 작은 목소리로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정도이다. 때문에 윤정이가 배우를 스스로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배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교사는 학급 유아들에게 배우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유아들에게 5차 동극 활동에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고, 유아들은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2) 소극적 유아들의 배우 역할 지지하기

‘무지개 물고기’ 동극 활동에서는 4차까지 동극 역할 분담 중 배우의 역할을 선택하지 않은 유아들을 배우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다음은 5차 동극 공연 장면이다.

해설: 깊은 바닷속에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관객:(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자) 헤엄쳐! (웅성거린다.)

교사: 헤엄쳐다니래요, 해설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

물고기 12345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도 굉장히 망설이고, 등장해서도 머뭇거린다.)친구들이 뭐라고 하나요? 다같이 시작!

다연, 보경, 가은, 윤정, 세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교사: 무지개 물고기 친구들 모두 다 같이 해 보자,

다연, 보경, 가은, 윤정, 세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너의 비늘을 주렴~

다연: 싫어

교사: 비늘을 달라고 하지 전에 물고기 12345는 처음 무지개 물고기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관객: 놀자고 했어요.

교사: 그래요, 비늘을 달라고 하기 전에 놀자고 먼저 했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다연, 보경, 가은, 윤정, 세연: 우리 같이 놀자

-중략-

교사: (파란 물고기가 등장하지 않자)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누구를 만났을까?

(건우가 등장한다.)

(2008.06.27. 5차 동극)

무지개 물고기 친구들 역인 물고기 1,2,3,4,5를 맡은 다연, 보경, 가은, 윤정, 세연이가 대사를 하지 못하고 있자 교사가 ‘같이’ 이야기하라고 지지하였고, 이들 유아들은 함께 힘을 모아 ‘너의 비늘을 주렴’이라고 대사를 했다. 이들이 한 대사가 내용 흐름에 맞지 않자 교사는 무지개 물고기를 처음 만났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고, 관객들이 ‘놀자고

했어요'라는 대답을 해 주었다. 교사가 다시 대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배우들은 관객의 도움을 받아 '우리 같이 놀자'라고 공연에 적합한 대사를 했다. 유아들은 배우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간 동료들의 공연을 보며 배우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교사는 파란 물고기를 맡은 건우가 등장하지 않자 건우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보다는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누구를 만났을까?'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극의 흐름을 배우 스스로 파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6) 6차 동극 활동-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로서의 교사

6월 30일 월요일에 '아! 우리 기차에서 내려' 동화를 읽어준 후, 우산 만들기(조형활동), 기차책에 동물 태우기(언어활동), 책 표지 퍼즐하기(조작활동), 기차 타기(게임활동)를 실시했다. 지난 다섯 차례의 동극 활동 개선에서 교사는 역할 분담을 이끌어갔다. 6차 동극 활동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장에서는 유아들이 주도하는 역할 분담 과정과 배우 선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유아들이 주도하는 역할 분담 과정의 시작

지난 5회차에 걸쳐 교사와 유아들은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해 역할 분담 과정을 함께 했다. 1차에서는 역할만 나누었을 뿐,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없어 유아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때문에 2차에서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모델링의 기회로 삼았고, 3차부터는 역할을 나누고, 구체적인 협의도 함께 했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될 수록 각 역할에 따른 자율성은 확대되어갔다. 다음은 유아들이 주도가 되어 역할 분담

과정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교사: 우리가 이제 마지막 동극을 해볼거예요, 여태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대본도 정하고, 역할도 정하고,
소품도 정해보았지요? 오늘은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세요, (희영이가 손을 든다.)그래
희영이가 이야기해보세요

희영: 병원놀이 했을 때처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해요,

교사: 어떻게 1차, 2차, 3차 나누어볼까?

희영: 첫 번째는 대본 쓰는 사람하고, 둘째는 배우를 정하고,
세 번째는 소품만드는 사람으로 해요,

교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상희: 칸을 나누어서 이름을 써요

교사: 아 이렇게 나누어요? (화이트보드에 칸을 나눈다.)

(2008.07.04, 6차 동극 역할 분담)

역할 분담 과정에 대해 희영이는 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서로 번갈아 가며 2차에 걸쳐 진행했던 병원놀이와 연관지어 이야기했다. 이에 교사는 희영이가 역할 분담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어떻게 1,2,3차로 나누어 볼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희영이는 정확하게 대본 쓰는 사람, 배우, 소품 만드는 사람으로 구분지어 대답했다. 교사가 다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을 한 의도는 역할을 희망하는 유아들 대상으로 정할지, 5차 동극에서 배우를 정하듯이 그간 활동이 부진했던 역할 위주로 정할지 유아들의 의중을 묻고 싶었지만, 상희는 칸을 나누어 이름을 적는다는 진행 방법에 대해 대답을 했다. 교사는 유아들과 이런 문제에 관해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풀어가고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진행했다.

(2) 배우 역할 정하기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역할 분담 과정에서 배우 정하기는 교사가 연구 과정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은 유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배우 역할 정하기의 사례이다.

교사: 배우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유아들: 소품 만드는 사람이요,
교사: 배우역을 맡는 친구들 이름을 먼저 적을까요?
유아들: 아니요, 나오는 사람...
교사: (정영이가 등장인물이라고 이야기 한다.) 정영이가 이야기 해보세요,
정영: 등장인물이요,
교사: 그래요, 등장인물을 먼저 정해야 몇 명이 필요할지, 내가 어떤 역할에 어울리지를 알겠지요. 그럼 등장인물 중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유아들: (등장 순서대로 이야기 한다.) 아이, 강아지, 꼬끼리, 물개, 두루미, 호랑이, 복극곰, 엄마요,
교사: 모두 몇 명이 필요해요?
유아들: 8명이요,
교사: 배우를 맡을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까?
꼬끼리, 물개, 엄마는 어떻게 해야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교사: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생각 다 했어요? 등장인물별로 배우를 정할까요? 배우를 정하고 등장인물별 역할을 나눌까요?
유아: 배우 먼저 정하고 나누어요,

교사: 그래요, “배우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는 일어나세요,

(2008.07.04, 6차 동극 역할 분담)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사가 배우를 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유아들은 등장인물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 하지만 교사가 배우역을 맡을 친구들의 이름을 먼저 적을지를 묻자 곧 ‘나오는 사람’, 즉 등장인물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교사는 등장인물을 파악해야 필요 인원을 알 수 있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역할도 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다음으로 교사는 유아들과 인원수를 파악한 후에 유아 자신이 등장인물 중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배우 선정에 있어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등장인물별 해당 역할을 할 배우를 정할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배우를 희망하는 유아를 먼저 선정하고 배우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등장인물별 역할을 정할지를 물었고, 유아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지난 다섯 차례의 배우 정하기에서 등장인물과 배우 역할 지원 유아의 수가 정확히 맞아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인원 조정의 문제가 이번 역할 분담 과정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다음은 배우 역할 정하기에서 인원이 맞지 않아 협의하는 과정이다.

교사: 배우를 하고 싶은 친구는 11명이구요, 필요한 배우

역할은 8명이예요, 어떻게 배우를 정할 수 있을까요?

유아들은 양보하기, 가위바위보 하기, 게임해서 이긴 친구가

원하는 역할 하기, 교사의 지목하는 친구가 하기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사: 그런데 '우리 누가 내 머리에 똥 똥?' 했을 때
 동물들 모두 한 마리씩이었는데 두 마리 인 것이 있었어요,
 유아: 파리요,
 교사: 그래 파리가 두 마리였어요,
 유아: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에서 아이도 두 명이었어요,
 교사: 그래요,
 유아: 닭도 두 마리였어요,
 교사: 그래요, ♪ 생각해 보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민형이가 손을 든다.)
 민형이가 좋은 생각이 났나봐요,
 민형: 어떤 역할은 두 명씩 해요,
 교사: 그래, 양보해주는 방법, 가위바위보하는 방법,
 거북이한테 물어보는 방법, 선생님말씀 잘 듣는
 사람이 하는 방법, 의논하는 방법, 내기하는 방법,
 두 명씩 하는 방법, 이렇게 7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너희들은 어떤 방법이 좋으니?
 유아들: 두 명씩 하는 방법이 좋아요
 (2008.07.04. 6차 동극 역할 분담)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등장인물보다 많은 수의 유아들이 배우를 지원한 것은 다섯 번의 역할 분담과정 중 처음 일어난 상황이었다. 유아들은 내기나 가위바위보, 교사의 지목 등을 제안하였고, 교사는 이미 경험했던 동극에서 한 역할에 두 명이 함께 했던 경험을 되새기게 해 주었다. 민형이가 두 명씩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른 유아들도 이에 동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를 선정하는데 인원 수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게 되었고, 융통성있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동극 진행 과정에서 유아들의 변화

유아들은 역할 분담과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통해 한 편의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극작가, 스텝, 배우, 관객, 평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동극 활동 개선 과정 중에 나타난 유아들의 변화를 극작가, 스텝, 배우, 관객, 평가자의 역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조력을 원하는 극작가들

(1) 유아와 교사 모두가 서툰 극작가의 역할

본 연구는 유아들에게 그림책에 있는 작가의 글과 그림을 그대로 전달하여 유아 스스로 분위기와 느낌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색된 동화를 이용하지 않고 그림책 그대로를 보여주며 읽어주고 동극 활동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동극을 하기 위한 대본 작성의 과정이 필요했다. 대본 작성을 하는 역할을 ‘극작가’라고 칭했으며 배우나 스텝과 달리 유아들의 사전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본 작성의 시작은 교사 주도로 유아들의 참여는 거의 없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1차 동극 활동시 진행된 대본 만들기 과정이다.

-실내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언어 영역에서 활동-

교사: 이제 우리가 ‘누가 내 머리에 똥 똥?’ 대본을 만들어 볼 거야,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할까?

유아들: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교사: (그림책을 펼쳐 보이며) 어떤 이야기가 있니?

유아들: (그림책을 보고 그대로 읽는다.)

교사: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만들어야지,

선생님이 먼저 해볼까? 해설이 햇벌이 좋은 어느 날 햇벌을 쫓러 두더지가 땅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똥이 두더지 머리 위에 날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희영: (교사가 만든 대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선생님 천천히요,

유아1: (전혀 관심없다는 듯이) 선생님 저 쌓기 놀이방에서 놀면 안 돼요?

유아2: 언제 끝나요?

유아 3: 안 하면 안돼요?

(2008.04.08, 대본 만들기)

위의 사례에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대본 만들기를 하지만 유아들은 대본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교사도 대본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안내는 하지 않고 대본 작성을 독려하기만 한다.

(2)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극작가들

1차 동극 대본 만들기에서 유아들이 극작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동극 활동에서는 과랑반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함께 대본 만들기를 실행했고, 3차 동극 활동부터 극작가 역할을 지원한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대본 만들기를 했다. 다음은 3차 동극 대본 만들기의 시작 과정이다.

교사: 처음에 해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유아들: (아무 반응 없다)

교사: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동화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지원: 할머니가 밭에서 풀 하고 있는 거요,

교사: 그래요, 할머니가~

지원: 풀
 교사: 할머니가 어디에서 풀을 발견했어요?
 지원: 팔밭에서
 교사: 할머니가 팔밭에서 풀을... 뭐하고 계셨어요?
 태현: 뽑고
 교사: 할머니가 팔밭에서 풀을 뽑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태현: 그 때 호랑이가 다가왔어요
 교사: 호랑이가 뭐라 그랬어요?
 도균: 내가 널 잡아먹겠다구요,

(2008.06.02, 3차 동극 대본 만들기)

위 사례에서와 같이 유아들은 ‘풀’, ‘뽑고’ 등의 단어만을 이야기하고 대사를 만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사가 ‘호랑이가 뭐라 그랬어요?’라는 질문에 내가 널 잡아먹겠다구요’라고 대답을 할 뿐이었다. 2차 동극 대본 만들기를 통해 극작가 역할을 경험해보았지만,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객들 대상으로 표현하는 언어로 변형시켜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교사가 대사의 처음을 시작해 주거나, 주요 단어를 암시해 주는 등의 개입을 함으로써 유아들은 대본을 만들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3차 동극 대본 만들기의 마무리 과정이다.

교사: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태현: 자라
 교사: 자라는 어떻게 왔어요?
 유아들: 찰박찰박
 교사: 그 때~
 유아들: 그 때 찰박찰박 자라가 왔어요
 교사: 자라가~

유아들: 할머니 왜 울어요?
 유아들: 호랑이가 날 잡아 먹으려고 온데
 유아들: 팔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먹게 해 드릴게요,
 유아: (진행을 멈춘다)
 교사: 다음에 누가 이야기할까?
 유아: (아무 반응이 없다)
 교사: 해설이 할머니는~
 유아들: 할머니는 자라에게 팔죽 한 그릇을 주었어요,
 (2008.06.02, 3차 동극 대본 만들기)

위 사례에서 유아들은 교사의 ‘그 때~’, ‘자라가~’, ‘할머니는~’ 등의 제시어에서 힌트를 얻어 대본을 만들었다. 유아들은 대사를 말하게 되는 배우들의 순서를 알고 ‘할머니 왜 울어요?’, ‘호랑이가 날 잡아 먹으려고 온단다’, ‘팔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먹게 해 드릴게요.’라고 유아들 스스로 번갈아 가며 대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유아들은 해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만들지 못하였고, 교사가 다시 ‘해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행하였다.

2) 정형화된 소품을 지양하는 스텝들

교사는 본 연구 진행 이전에 동극 활동 진행할 때 등장인물을 나타낼 수 있는 얼굴본을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색칠하여 머리띠나 목걸이로 만들어 활용하거나, 상품화된 동극용 머리띠나 모자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동화 듣기 후 바로 연계되는 동극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시간 절약과 수업 전개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본 연구인 동극 활동 개선 과정에서는 교사는 이러한 소품을 탈피하여 유아들의 참여와 창의성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소품 제작보다는 등장 인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전체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협의하여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여기에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만든 소품을 초기 작품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 협동 작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처음 만들어진 전형적인 소품들

스텝의 역할을 처음 맡은 유아들이 1차 동극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에서 만든 소품은 [사진 1], [사진 2]와 같이 각 인물을 평면으로 만들어 끈을 단 목걸이 형태였다. 이런 형식의 소품은 머리띠와 더불어 동극 소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인물의 특징이나 유아들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작품들이다.

이런 형식의 소품이 나오게 된 원인은 1차 동극 역할 분담시 스텝, 배우, 극작가로 역할만을 분담했을 뿐 각 역할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협의나 제안, 교사의 역할, 모델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소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교사 또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1]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2008. 04. 11)



[사진-2]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2008. 04. 11)

(2) 창의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소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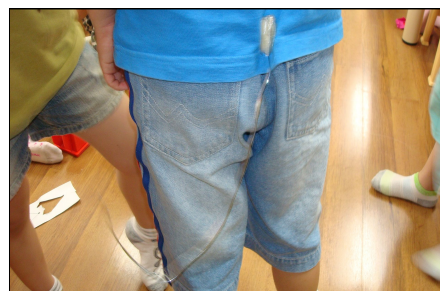
2차 동극활동부터는 역할 분담 과정에서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제작할 소품에 관해 전체 유아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개별 유아가

제작할 등장인물별 소품 명칭과 그것을 표현할 방안에 대해 전체 유아들과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렇게 등장인물별 구체적인 소품을 협의한 후 극작가, 스텝, 배우로 역할을 나누었다. 이로 인해 스텝 역할을 지원하는 유아들은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 상황에서 좀 더 자신있게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극 횡수가 거듭 될수록 등장인물별 소품에 대한 협의는 간단해지고,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에게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소품 제작에 대한 좀 더 많은 책무감이 주어졌다.

2차 동극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에서 과랑반 유아들은 고양이를 위한 소품으로 고양이 머리띠나 가면, 목걸이가 아닌 ‘고양이 코’를 만들자고 했다. 배우의 얼굴을 고양이 얼굴로 여기고 여기에 고양이의 특징인 긴 수염을 가진 코를 만들기로 하였다. 스텝 역할을 맡은 상희는 [사진-3]과 같이 뽕뽕이를 고양이 코로 설정하여 여기에 뽕끈을 길게 잘라 수염으로 붙이고, 배우가 착용할 수 있도록 고무줄을 연결해 고양이 소품을 완성하였다. 4차 동극 ‘꼬리를 돌려주세요’에서 과랑반 유아들은 여우를 위한 소품으로 꼬리를 만들자고 했고,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에게 일임하게 되었다. 스텝 역할을 맡은 민형이는 [사진-4]와 같이 뽕끈을 길게 잘라 구부려 여우의 꼬리를 만들고 뽕끈을 끝부분에 테이프의 접착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동그랗게 말아 붙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할머니가 여우의 꼬리를 떼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사진-3>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2008. 05. 20.)



<사진-4> 꼬리를 돌려 주세요
(2008. 07. 15.)

2차 동극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에서는 닭이 등장하고, 6차 동극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에서는 두루미가 등장한다. 과랑반 유아들은 닭과 두루미의 소품으로 날개를 만들기로 협의하였다. 2차 동극 협의에서는 스팅글을 이용해서 닭 날개의 여러 빛깔을 표현하기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고, 6차 동극에서는 날개를 만들자고만 협의했다. 닭의 날개를 만든 가은이는 [사진-5]와 같이 연두색 도화지를 날개 모양으로 자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의 스팅글을 붙여 날개를 표현하고, 이것에 빵끈을 가방끈처럼 연결해서 배우가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두루미 날개를 만든 보경이는 [사진-6]과 같이 날개 모양으로 도화지를 두장 오리고, 이것을 서로 붙여 팔을 끼울 수 있는 폭 10cm, 길이 25cm정도의 주머니를 만들었다. 똑같은 새의 날개를 제작했지만, 2차 동극에서는 어깨 끈 형식으로, 6차 동극에서는 주머니 형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유아들은 모방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신들만의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사진-5>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2008. 05. 20.



<사진-6>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2008. 07. 15.

(3) 협동 작품으로 제작되는 소품들

2차 동극 ‘검피아저씨와 뱃놀이’에서 양 털옷을 만들기 위해 많은 유아들이 협동하였다. 양 털옷을 만들기로 한 유아들은 [사진-7]과 같이 흰색 종이를 가

늘게 자르고, 연필로 종이를 말아 구부린 후 역할 놀이방에서 공룡 옷으로 사용하던 부직포 조각에 붙여 양 털옷을 표현했다.

3차 동극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에서부터 스텝의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이 배우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배우를 기준으로 해서 소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파랑반 유아들은 미끌거리는 똥을 표현하기 위해 파란색 비닐을 이용하기로 협의했다. 스텝 역할을 맡은 희재는 파란 비닐 봉투를 이용하여 영한이에게 맞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했다. 희재는 [사진-8]과 같이 파란 비닐 봉지를 개똥 역할을 맡은 영한이에게 직접 입히면서 제작하였다. 비닐옷을 입은 영한이는 동극 활동시 바닥에 누워 똥을 표현함으로써 비닐 옷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

5차 동극 ‘무지개 물고기’에서 유아들은 문어 할머니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기로 협의했다. 문어 다리 제작을 맡은 혜원이와 상희는 두꺼운 도화지를 길게 자르고, 서로 다른 재료와 방식으로 도화지를 꾸며 문어 다리를 표현했다. 8개의 다리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혜원이와 상희는 다른 스텝 유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른 유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크레파스, 뽕뽕이, 스팅글, 싸인펜 등 다양한 재료로 꾸민 다리가 되었고, 교사가 구멍을 뚫고 고무줄로 연결해 주자, [사진-9]와 같이 문어 할머니 역을 맡은 희영이를 불러 입혀보면서 허리끈의 둘레 길이를 조정하였다.

파랑반 유아들은 무지개 물고기를 위해 여러 빛깔의 비늘옷을 만들기로 협의했다. 비늘을 만들기로 한 영한, 태현, 정영이는 [사진-10]과 같이 ‘무지개 물고기’의 반짝이는 여러 개의 비늘을 위해 두꺼운 도화지로 같은 모양의 비늘을 오린 후, 서로 다른 아이디어로 크레파스 색칠, 스팅글 붙이기, 색종이 모자이크 등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비늘을 만들고 이를 부직포 옷에 붙여 무지개 물고기를 표현했다.



<사진-7>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
2008. 05. 20.



<사진-8>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2008. 05. 20.



<사진-9> 무지개 물고기
2008. 06. 24.



<사진-10> 무지개 물고기
2008. 06. 24.

3) 무대에 적응하는 배우들

3월에 진행된 처음 동극활동에서 유아들은 대사전달이나 등장과 퇴장, 움직임 표현에서 배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실시하여 통합적 동극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배우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화를 경험하여 내용과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등장인물을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방관자, 소극적 참여자인 배우, 노력하는 배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배우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아들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1) 방관자, 소극적 참여자인 배우들

평소 유아들이 동극 활동에서 선호하는 것이 배우 역할이지만 동시에 유아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유아가 자의나 타의에 의해 배우 역할을 맡아 무대 위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등장인물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다음은 수현이가 1차 동극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에서 정육점 개 한스 배역을 맡아 공연하는 상황이다.

교사: 자, 시작합니다, 해설 준비됐어요?

희영: 예

교사: 관객들 박수

관객: (박수친다.)

동극이 시작되었지만 정육점 집 개 한스를 맡은 수현이가 한스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닌다. 이 때문에 유아들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교사가 들어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수현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교사가 직접 수현이를 한스 집 안에 앉히고 동극을 시작한다.

-중략-

정영: (두더지 머리에 코를 대보고) 이건 개 똥이야

(두더지역인 도균이가 한스역인 수현이에게 다가간다. 수현이가 집 밖으로 나와 서 있자, 도균이가 들어가라고 하지만, 그대로 서 있는데,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자, 교사가 앉힌다.)

-중략-

평가 시간 내내 수현이는 벽돌 블록으로 만든 한스 집에 앉아서

벽돌 블록만 만지작거리며, 전혀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2008.04.25, 1차 동극)

위의 사례의 수현이는 또래 유아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놀이나 책읽기를

좋아하는 유아다. 수현이는 한스 집에 앉아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돌아다녀 교사가 직접 앉혀주고, 공연 중에도 집 밖으로 나와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동극에 적응하기 어려워보였다. 또한 평가 시간에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한스 집에 앉아 벽돌 블록을 만지고 있었다. 이번 동극 활동에서 배우에 된 계기도 수현이의 선택이 아닌 역할 분담시 어떠한 역할도 선택하지 않아 남아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평소 수현이는 교사의 지시나 호명에도 한 번에 대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때문에 극의 진행상 교사가 물리적으로 수현이를 유아들이 벽돌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한스 집에 앉힐 수 밖에 없었다. 평가 시간의 수현이의 비참여적인 모습은 현장 상황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수현이의 행동에 대해 다른 유아들도 개의치 않고 있었다. 활동 끝난 뒤 동영상을 관찰하며 수현이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은 2차 동극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에서 현석이는 소 배역, 민형이는 검피 아저씨 배역을 맡아 공연하는 상황이다

소 역할을 맡은 현석이의 순서가 되자 등장한다,
 현석이는 관객에게 등을 돌린 채, 검피 아저씨 역을 맡은 민형이에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저씨 저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배 안으로 들어간다,
 민형이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 쿵쿵거리지만 앓는다면’ 을 책을 외워 입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야기해 버린다,
 다음 배우가 등장하지 않자 교사가 등장을 알려준다,
 양 역할을 맡은 지민이는 등장해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검피에게 이야기하고 배에 탄다,
 -중략-
 해설이 극의 진행하지 않자 교사가 해설 대사를 하도록 알려주고, 배우들에게는 해설의 지시대로 움직여보라고 한다, 배우들이 등장 인물을 표현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무대를 돌아다니자 이제는

교사가 해설을 맡는다,

교사: 다시 한 줄로 서서 짚으로 갑니다, 한 줄로 서서 짚으로

갑니다, 차 마실 시간입니다, 모두 동그랗게 앉았어요,

(부서진 배 조각인 벽돌 블록을 의자로 이용해서 동글게 앉는다.)

검피 아저씨 이야기합니다,

민형: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교사: 맛있게 차를 다 마셨습니다,

(2008.05.30, 2차 동극)

위 사례에서 소 역할을 맡은 현석이는 무언가 처음의 시작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짙은 소심한 성격의 유아다. 현석이는 등장해서 검피 아저씨를 바라보고, 관객들에게는 등을 돌린 채, 대사는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는 배안으로 들어갔다. 검피 아저씨 역할을 맡은 민형이는 평소에 발표도 잘 하고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며, 활달한 성격의 유아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와 같이 민형이는 동극 공연 내내 거의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듯이 대사를 하거나 교사의 지시에도 대사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2) 등장인물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배우들

1차 동극 공연시 자기소개를 전혀 하지 못했고, 무대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으며, 평가 시간에도 무대 소품만을 만지작거리며 방관자로 맴돌던 수현이가 2차 동극 활동에서는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수현이는 1차 동극 공연에서 대사 말하기, 자기 소개, 등장과 퇴장, 제자리에 앉아 있기도 어려웠던 유아이다. 다음은 수현이가 2차 동극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에서 염소 배역을 맡아서 공연하는 상황이다.

-배우들이 무대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

(수현이 차례이나 순서를 모르고, 돌아다닌다.)

교사: 마지막 박수현! 수현이 발표합니다.

수현: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친구틈에 가서) 저는 염소를 맡은 수현입니다.

-중략-

-동물들이 차례로 나와 검피 아저씨한테 질문을 하고 배에 타는 장면-

상희: 아저씨 저도 태워주시면 안돼요?

(수현이 차례가 아닌데 상희를 따라 나온다.)

수현: 저도 태워 주시면 안돼요? (대사가 끝나자 그대로 배 안으로 들어간다 다른 유아들이 수현이의 행동을 보고 웃자 다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장소로 간다.)

민형: (거의 들리지 않는다.)

슬기: 아저씨 저도 태워주시면 안돼요?

(수현이 다시 등장한다.)

수현: 저도 태워주시면 안돼요? (대사가 끝나자 배안으로 들어간다.)

(2008.05.30, 2차 동극)

위 사례에서 수현이는 지난 동극 공연에서 하지 못했던 역할과 이름을 이야기하며 자기소개를 했다. 염소 배역을 맡은 수현이는 슬기가 퇴장한 뒤에 등장해야 하지만, 상희가 등장할 때 함께 등장해서 대사를 이야기하고, 배에 올라탔다. 관객들이 웃자 자신이 다른 등장인물의 순서에 등장한 실수를 알고 대기 장소로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염소가 등장할 순서에 맞춰 다시 등장해서 대사를 하고 배에 탔다.

이처럼 2차 동극 공연에서 참여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던 수현이가 다음 사례에서와 같이 3차 동극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에서는 다른 유아들과 함께 공연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팔죽 할머니 역을 맡은 상희와 자라 역을 맡은 수현이의 대화 장면-

수현: 할, 머, 니, (또박또박하게) 왜 울어요?

(여기서부터 상희는 허리를 약간 숙여 할머니 모습을 표현한다.)

상희: 밤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데

수현: 나 팔죽 하나만 주면 내가 호랑이를 물어버릴게요.

상희: (팔을 뻗어 팔죽 주는 시늉을 한다.)

수현: (받아먹는 시늉을 하며 퇴장한다.)

(2008.06.05, 3차 동극)

3차 동극에 접어들자 수현이는 등장과 퇴장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등장 순서에 맞게 등장해서 또박또박하게 ‘할머니 왜 울어요?’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수현이가 ‘물어버릴게요’라고 한 말은 자라 역을 맡은 수현이가 앞으로 호랑이에게 해야 할 행동을 이야기한 것이다. 또한 수현이는 앞서 친구들이 팔죽을 받아먹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모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현이가 변화된 원인은 그간 친구들의 동극 모습을 많이 관찰했고, 다양한 통합 활동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동화에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6차 동극 활동 역할 분담 과정에서 배우 역할에 대한 수현이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사: “대본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교사가 극작가 역할을 원하는 유아의 이름을 받아 적는다.

수현: (교사가 유아들의 이름을 적는 동안) 수현이는 배우할래요!

(2008.07.04, 6차 동극 역할분담)

위 사례에서와 같이 1차 동극 활동에서는 역할 분담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2차부터 수현이는 늘 배우의 역할을 지원했고, 총 4회의 동극 활동에서 수현

이는 관심없는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하게 되었다.

다음은 5차 동극 공연 상황으로, 5차 동극의 배우는 1차에서 4차 동극에서 배우를 하지 않았던 유아들이 배우를 맡게 되었다. 배우의 역할을 처음 경험하는 이들 유아들은 3월에 진행된 첫 동극 활동인 '커다란 순무' 때의 배우들의 모습과 비슷했다.

교사: 비늘을 달라고 하기 전에 물고기 12345는 처음 무지개 물고기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관객: 놀자고 했어요.

교사: 그래요, 비늘을 달라고 하기 전에 놀자고 먼저 했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다연, 보경, 가은, 윤정, 세연: 우리 같이 놀자

다현: (아무 대답도 없이 뒤로 물러나자, 물고기 친구들이 "싫어" "싫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머뭇거리기만 한다.)

교사: 뭐라고 했을까요?

관객 유아들: 싫어

(물고기 12345 퇴장한다.)

인수: 무지개 물고기는 그냥 가버렸어요.

(다현이가 퇴장하지 않자 유아들이 가라고 한다.)

교사: (파란 물고기가 등장하지 않자)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누구를 만났을까?

관객유아들: 파란 물고기

(건우가 등장한다.)

(2008.06.27, 5차 동극)

5차 동극이기는 하지만 배역을 맡은 유아들은 배우 역할을 처음하는 유아들로서 등장과 퇴장, 대사하기, 등장인물 움직임하기 등 배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동극 초반에는 교사나 관객의 개입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친구들이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3월에 실시한 동극 실행 때처럼 동극이 끝나칠 때까지 배우들이 대사를 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등장과 퇴장 순서를 모르는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지는 않았다. 다음은 5차 동극 공연의 중반을 넘어설 때의 상황이다.

(해설이 이야기하기 전에 현석이 먼저 등장해서 바닥에 엎어져 준비한다.)

해설: 파란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에게 다 말했어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불가사리에게 갔어요,

다현: (엎어져 누워있는 현석을 서서 내려다보며) 불가사리 아저씨 친구들이랑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석: 문어할머니에게 물어봐(기어서 퇴장한다.)

해설: 무지개 물고기는 문어할머니에게 갔어요,(교사가 함께 이야기하며 도와준다)

(다현이는 동굴이 꾸며진 곳으로 간다, 희영이는 동굴로 꾸며진 책상 아래에 있다가 나온다.)

다현: 문어할머니 친구랑 같이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영: 비닐을 하나씩 나누어 주렴, (이야기를 마치고 급하게 동굴을 빠져나와 배우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움직인다.)

인수: 갑자기 문어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다현이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

(2008.06.27, 5차 동극)

위 사례에서와 배우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공연 처음보다 대사 말하기나 등장과 퇴장에 익숙해져 있었다.

유아들이 조금씩 공연에 적응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가사리 역을 맡은 현석이 만큼은 도드라져 보였다. 현석이는 2차 동극시 배우한 경험이 있는 유아다. 그러나, 2차 동극 공연시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현석이는 극작가, 스텝, 배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누가 표기한 기록물에도 착오가 있었고, 현석이 조차도 배우의 경험이 없었다고 역할 분담시 주장했던 탓에 배우의 경험이 없는 유아들만이 배우 역할을 하게 된 5차 동극에서 불가사리 배역을 맡게 되었다. 비록 대사는 적었지만, 현석이는 자신이 맡은 역할인 불가사리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바닥에 엎드리고, 기어서 퇴장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무지개 물고기역을 맡은 다현이의 경우 동극 전반부에서는 등장과 퇴장도 어려웠는데,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대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은 과량반 유아들은 직접 배우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동극 활동을 극작가, 스텝, 관객, 평가자의 역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 역할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배우들

3차 동극 공연시 배우들이 등장인물 표현을 어려워해서 극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4차 동극 활동에서는 배우들의 동작이나 표현에 대해 전체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유아들은 교사의 ‘~는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질문에 할머니는 혼내는 목소리, 들판은 바람 불 때 움직이는 모습,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는 모습, 보따리 장수는 아저씨 목소리 등을 이야기했다. 유아들은 등장인물의 특징을 생각해서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아들은 실제 동극 상황에서 이런 모호함을 더욱 창의적으로 표현하

였다. 다음은 4차 동극 ‘꼬리를 돌려주세요’ 공연 장면이다.

-여우 역인 도균이가 우유를 얻기 위해 소, 들판, 시냇물, 아가씨,
보따리 장수를 찾아 부탁하는 장면-
도균이는 소에게 가서 우유를 달라고 했더니 풀을 가져오라고 했고,
들판에게 가서 풀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가져오라고 했다. 도균이는
물을 구하기 위해 시냇물을 찾아갔다. 시냇물역을 맡은 지민이는
등장하자 바닥에 누워 시냇물을 표현하고 있다.
도균: 저에게 물을 주세요.(시냇물이 대사를 하지 않자)
관객: 향아리
지민: (누워서 두 팔을 흔들어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표현하며
이야기한다.) 향아리를 가져오면 물을 주마,
서연: 여우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관객: (교사를 흉내내며) 시냇물 들어가세요.(지민이가 등장하여
아가씨처럼 양 다리를 옆으로 하고 앉는다.)
도균: (관객에게 등을 보이고 아가씨에게 이야기한다.) 향아리를
주세요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민: 안돼, 어~ 파란 구슬을 가져오면 향아리를 주마 (퇴장한다.)
서연: 여우는 보따리 장수에게 갔어요. (은석 등장하여 다리를
세우고 엉거주춤하게 앉는다.)
도균: (관객에게 등을 보이고, 은석이와 마주 앉는다.) 보따리
장수님! 저에게 파란 구슬을 주세요.
은석: 안돼! 달걀을 주면~(아주 굵은 아저씨 목소리를 흉내내며~)
서연: 가져오면!
은석: 나에게 가져오면 주마!(퇴장한다.)
관객: (마구 웃는다.)
교사: 우와! 진짜 아저씨 같다.

(2008.06.17. 4차 동극)

위의 사례를 통해 시냇물 역을 지민이는 바닥에 누워 시냇물을 표현하고 있었다. 아가씨 역을 맡은 지원이의 경우도 동화책에서 아가씨는 앞으로 두발로 뻗고 여우와 대화하는 장면이지만, 지원이가 생각하는 아가씨는 다리를 옆으로 하고 다소곳이 앉는 모습이었는지 양 다리를 옆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보따리 장수 역을 맡은 은석이는 배우 첫 경험이어서 긴장했는지 대사가 중간에 끊어지긴 했지만 유아들의 도움과 웃음으로 무척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과감하게 굵은 아저씨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었다.

4차 동극 활동에 참여할 때 유아들이 배우역할을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은 6차 동극 활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석이는 2차 동극 공연에서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사만 하며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었고, 5차 동극 공연에서는 등장인물인 불가사리 표현을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는 등 실감나게 했었다. 이런 현석이가 6차 동극 공연에서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한 배우가 아닌 남을 돕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다음은 6차 동극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공연 장면이다.

아이역을 맡은 민이가 대사를 하지 않아 동극이 진행되지 않는다.

교사: 무슨 놀이 했어요? 아이가 이야기해요,

민:...

교사: 날씨가 어땠어요,

민:...

교사: 다른 친구들이 해도... (현석이가 반응을 하자) 현석이가 하세요,

현석: (작은 소리로) 비가 옵니다,

교사: 그래요, 비가 옵니다,

배우모두: 우리 우산 쓰고 돌아다니자

(모두들 우산 쓰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2008.07.15, 6차 동극)

두루미 배역을 맡은 현석이는 본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이의 역할을 도와 주었다. 즉, 민이가 극의 진행을 하지 못하자, 교사가 극을 진행하기 위해 ‘날씨가 어땠어요’라고 민이에게 질문을 했고, 민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현석이가 ‘비가 옵니다’라고 민이의 대사를 대신해 주는 적극성을 보였다.

4) 동극 진행의 도우미가 되는 관객들

교사가 본 연구 이전에 실시했던 동극 공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대 안의 배우들의 연기보다는 무대 밖의 관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객들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무대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즐기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역할 분담 과정에서 극작가와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배우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연기할 때, 모두 관객이 되어 동극을 관람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관객들은 예전처럼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상관없는 방관자가 아닌 “내가 만든 의상을 입은 친구가 공연을 한다.” “내가 만든 대사를 친구가 이야기한다.” “내가 꾸민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등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객들은 배우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극의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객들의 변화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1) 파랑반에서 처음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

관객이 된 유아들도 동화 중심 통합 활동을 통해 동화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의 등장과 퇴장, 대사 말하기, 행동하기 등 극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관객이 된 유아들은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을 즐기면서 자신들이 제작한 소품이나 무대, 대사 등을 감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객이 된 유아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서 소리를 지르며 극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다음은 1차 동극 공연에서 관객들의 개입 모습이다.

희영(해설): 두더지가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가 나오지 않자)

관객: 야! 너야 너! (슬기를 지목한다.)

관객: 아냐 토끼가 두 번째로 나와야 돼!

관객: 아냐 토끼 맞아, 그냥 너 나가!

도균: 니가 내 머리에 똥 싹지?

슬기: 아니 내가 왜?

(2008.04.25, 1차 동극)

토끼역을 맡은 슬기가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 관객이 된 유아들은 서로가 동극의 진행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슬기의 등장을 독려했다. 하지만 관객이 된 유아들조차 토끼의 정확한 등장 순서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배우를 돕고 있는 관객들

동극 활동이 거듭되면서 관객이 된 유아들의 참여는 극의 흐름을 돕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관객이 된 유아들은 극의 흐름을 잘 알고 있고, 극작가나 스텝의 역할을 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극의 진행을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었다. 다음은 관객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태현: 오랑이가 더 많이 뽑았어요.

(상희와 인수가 해설의 이야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없이 잡초 뽑는

시늉을 계속하자)

관객유아들: 그만해~ 호랑이 승!

교사: 호랑이가 이겼습니다.

(상희와 인수 모두 그대로 서있자)

관객유아들: 이제 호랑이가 잡아먹어야지 할머니를

인수: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가 할머니를 잡아먹겠다.

(2008.06.05, 3차 동극)

인수: 갑자기 문어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다현이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

관객유아들: 파란 물고기 나와, 파란 물고기 나오세요.

(건우는 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현이에게 다가간다.)

관객유아들: 무지개 물고기야 비늘 한 개만 줘.

건우: (머뭇거린다.)

관객유아들: 줘 줘

다현: (몸에 있던 비늘 한 개를 떼어내 건우에게 준다.)

(2008.06.27, 5차 동극)

1차 동극 진행 때와는 달리 관객이 된 유아들은 배우 역할을 맡은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다. 극의 흐름을 놓친 배우의 행동과 대사를 대신해 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3차 동극에서 인수가 대사를 하지 못하자 인수의 대사를 도우미의 입장에서 ‘이제 호랑이가 잡아먹어야지 할머니를’이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있었다. 1차 동극시 토끼 역을 맡은 슬기가 등장하지 않자 ‘너야 너’라고 하며 배우의 입장 순서만 집착했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또한 관객이 된 유아들은 배우가 된 동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자신감있게 발표를 하지 못하는 건우를 위해서는 관객이 된 유아들이 대신 대사를 해 주고, 그것을 건우가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배우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등장과 퇴

장을 알려주거나 대사를 대신해 주며 돕던 관객이 된 유아들은 6차 동극 활동에서 극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적절히 개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관객이 된 유아들이 조심스럽게 극의 진행을 돕는 모습이다.

교사: 소개합니다,

(제일 앞서 있는 민지가 소개를 하지 않고 서있자 관객 유아들이)

관객 유아들: 김민지, 저는 해설을 맡은~(교사의 어투를 흉내내며)

민지: 저는 해설을 맡은 김민지입니다,

-중략-

해설: 코끼리를 기차에 태워줬습니다, 아이와 강아지와 코끼리는
물놀이를 했습니다,

강아지와 코끼리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 물개역을 맡은 가은이가
등장해야하지만, 해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 때 관객
유아들이 "물개 물개" 라고 조용조용 이야기해 주자, 가은이가 이를
듣고 등장한다,

(2008.07.15. 6차 동극)

위의 사례에서 자기 소개하는 순서에서 민지가 머뭇거리자, 관객이 된 유아들은 그전 교사가 하던 것과 같은 톤과 방식으로 민지를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다. 동극 진행 중에도 물개역을 맡은 가은이가 등장하지 않자 관객이 된 유아들은 그전처럼 큰 소리로 '너야 너' '나가 나가'라며 다그치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진지하게 가은이의 등장을 도왔다. 이제 관객이 된 유아들은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배우 역할을 하는 친구를 돕는 방법을 알아냈다.

5)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평가자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과 단위 활동을 마치고 나면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활동 목표의 달성 정도나 활동의 난이도, 유아들의 흥미와 만족도, 개선해야 할 점등을 파악하여 다음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동극 활동도 공연이 끝나면 바로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배우 역할을 한 유아는 배우 입장에서 관객이 된 유아는 관객의 입장에서 동극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1) 대상의 특징을 찾아가는 평가자들

다음은 과랑반에서 동극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3월에 실시했던 동극 ‘커다란 순무’ 공연 후에 이루어진 평가 내용이다.

평가를 희망하는 원아들이 손을 들어 표시하면, 교사가 호명하여 발표한다.

정영: 검둥개요

교사: 검둥개의 어떤 점을 평가하고 싶니?

정영: 그냥

교사: 검둥개를 한 영한이가 어땠어요?

정영: 재미있었어요.

교사: 그 다음에 민형이 평가하세요.

민형: 순무야 순무야 단단하게 자라렴 이야기할 때요.

교사: 순무야 단단하게 자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재미있었구나.

다음 태현이가 평가하세요.

태현: 임채연이요

교사: 임채연이 어땠어요?

태현: ...

교사: 임채연이 어떻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현: 재미있었어요

(2008.03.14, 파랑반 3월 동극)

음률활동이나 게임을 마치고 늘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생소한 경험은 아니었다. 하지만 ‘커다란 순무’ 동극을 마치고 한 평가에서는 ‘검둥개요’, ‘순무야 순무야 이야기할 때요’ ‘임채연이요’ 라고 자신들이 인상적이었던 인물이나 대사를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교사가 평가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검둥개를 한 영한이가 어땠어요?’ ‘임채연이 어떻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접근해도 유아들은 ‘재미있었어요’라는 평가 이외에는 다른 반응이 없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배우의 어떤 점을 평가해야 하는지, 동극 진행의 어떤 점을 평가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1차 동극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평가시 다음과 같이 유아들에게 평가의 시범을 보였다.

교사: 예 동극 마칩니다, 선생님이 먼저 평가 한 가지만 할께요,

처음에 비둘기 누구였어요?

유아들: 연호요

교사: 연호는 처음에 연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아들: 잘 날아왔어요.

교사: 선생님은 정말 비둘기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연호가 진짜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표현을 잘 해 주었어요.

연호 칭찬 많이 해요.

(2008.04.25, 1차 동극 평가)

교사가 비둘기 역을 맡은 연호가 날개 짓을 표현한 것을 ‘정말 비둘기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칭찬하고, 비둘기의 특징을 잘 표현한 점을 평가해 주었다. 교사의 이런 평가는 앞으로의 동극 공연에서 등장인물의 특징을 표현해

야 하는 배우가 될 유아와 그것을 감상하고 평가하게 되는 관객이 될 유아 모두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교사의 평가 후에 유아들이 동극 공연에 관해 평가한 내용이다.

상희: 파리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채현: 파리가 나는게 재미있었어요

지원: "니가 내 머리에 똥 샐지?" 하는게 재미있었어요

보경: 돼지가 꿀꿀하는게 재미있었어요

인수: 말이 말하는게 재미있었어요

(2008.04.25. 1차 동극 평가)

관객이 된 유아가 된 유아들은 배우들의 행동과 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회상하여 평가에 임했다. '재미있었어요'라는 평가는 일관됐지만, 유아들마다 재미있다고 느낀 점은 서로 달랐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상희는 파리를 맡은 정영이가 팔을 팔닥거리며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그냥 파리가 재미있다고 했고, 채현이는 상희가 팔닥거린다고 표현한 것들 나는 모습이라고 구체화시켜 주었다. 지원이는 '니가 내 머리에 똥 샐지?'라고 배우가 한 대사를 그대로 읊기며 재미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경이는 돼지를 맡은 지민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돼지 울음소리 흉내내는 것을 재미있었다고 평가했다. 인수는 말 역할을 한 태현이가 대사하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평가했다.

(2) 비판적인 평가자들

관객이 된 유아들의 평가는 이제 단순히 배우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배우들의 연기가 관객이 된 유아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다.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부족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부분의 평가까

지도 하게 되었다. 다음은 동극 공연 후 유아들이 한 다양한 평가 내용이다.

세연: 배우들이 목소리가 좀 작아서 들리지가 않았어요,

교사: 그렇지요, 선생님도 안 들렸어요, 텔레비전에서 소리 줄여놓고 보는 것 같았어요,

-중략-

희영: 배우들이 장난치고 이러구, 해설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교사: 맞아요, 선생님도 희영이가 한 말 하고 싶었어요, 해설이 포박포박 이야기를 해 주어야 배우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겠지요,

(2008.06.05, 3차 동극 평가)

희영: 저번(06.05,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는요 목소리가 너무 작고 해설도 목소리가 작았는데 이번에도 소리도 크고 동작도 크게 했어요,

-중략-

민형: 동작이 컸는데요, 동작이 느렸어요

정영: 어 최은석이 진짜 보따리 장수 같았어요

현석: 저번에 목소리가 다 작았는데 오늘은 커요

채현: 지민이가 시냇물 하는게 웃겼어요

교사: 그렇지요, 지민이하고 영한이고 어떻게 했어요?

유아: 누워서

교사: 지민이는 누워서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표현했고,

영한이는 누워서 팔을 흔들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2008.06.17, 4차 동극 평가)

지원: 무지개 물고기가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서연: 무지개 물고기가 목소리가 작아서 재미가 없었어요.

민: 파란물고기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중략-

교사: 네, 다음 배우들 평가합니다.

희영: 문어집이 너무 작아서 머리가 찢어졌요.

교사: 그렇게 책상이 조금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보경: 관객들이 잘 봐 줘서 좋았어요.

(2008.06.27, 5차 동극 평가)

슬기: 배우들이 작은 목소리가 해서 잘 안 들리고 재미가 없었어요.

인수: 배우들이 장난쳤어요

희영: 해설은 목소리가 작고, 배우들은 혼자서 노는 것 같았어요.

가은: 해설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배우들이 순서를 잘 알지

못했어요.

(2008.07.15, 6차 동극 평가)

3차 동극 평가에서 배우의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는 세연이의 평가는 다른 유아들에게 평가를 하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다. 희영이는 해설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배우들이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함으로써 배우가 공연에 집중하지 못한 원인을 해설에게서 찾고 있었다.

4차 동극 평가에서 희영이는 3차 동극과 비교해서 배우와 해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희영이는 '저번에는'이라고 표현하면서 3차 동극 활동을 지칭하면서 해설의 목소리가 작았었는데 4차 동극에서는 커졌다고 평가했다. 정영이는 보따리 장수 역을 맡은 은석이가 굵은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 것을 진짜 보따리 장수 같다고 평가했다. 채현이가 시냇물 역을 맡은 지민이가 시냇물을 표현한 것이 웃기다고 평가했고, 교사가 채현이의 평가를 다른 유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누워서 시냇물을 표현했음을 구체화시켜 주면서 바람 역을 맡은 영한

이가 누워서 팔을 흔들며 바람을 표현한 것까지 함께 격려해 주었다.

5차 동극 평가에서 서연이는 무지개 물고기의 목소리가 작아서 재미가 없었다고 처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배우 역할을 한 희영이는 문어집이 작아 머리를 찢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무대 설치의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경이는 배우의 입장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잘 관람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6차 동극 평가에서 인수는 배우들이 장난친 점을 지적했다. 희영이가 배우들이 혼자 노는 것 같다고 평가하자 가은이는 배우들이 등장 순서를 잘 알지 못한 원인을 해설의 목소리가 작아 지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3) 평가에 평가를 거듭하는 평가자들

평가자로서 유아들은 배우의 행동 평가에서 배우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과 비교하여 언어로 묘사를 하는 섬세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다음은 5차 동극 공연 평가 내용이다.

연호: 현석이가요 들어갈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교사: 선생님 마음도 똑같아요, 현석이가 불가사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아들: 누워서

교사: 누워서, 정말 선생님은 불가사리인 줄 알았어요, 불가사리는 다닐 때 바닷속을 기어서 다니지요, 현석이 너무 좋은 생각 했어요, 현석이는 집에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나봐요, 정말 불가사리처럼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 박수 좀 쳐 주세요,

-중략-

도균: 불가사리 기어다니는데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현석이가 그렇게 조금 했어요.

(2008.06.27. 5차 동극)

위의 사례에서 연호가 불가사리 역을 맡은 현석이 등장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누워 대사를 말하고 퇴장할 때 엎드려 기어가는 모습을 대해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이것에 대해 교사는 불가사리의 생태에 관해 언급하였고, 도균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불가사리의 움직임과 현석이의 행동을 비교하여 ‘불가사리는 기어다니는데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조금 했어요’라고 자신의 사전지식과 친구의 행동을 비교하며 평가했다.

평가는 타인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5차 동극 활동에서 배우 역할은 앞서 네 차례의 동극 활동에서 배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아들이 맡았다. 다음은 배우 역할을 처음 해보는 가은이가 공연을 한 후, 실시한 5차 동극 활동 평가 사례이다.

가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배우가 어렵지 않았어요,

교사: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배우를 했어요?

유아들: 여태까지 배우를 안 한 친구들이요,

교사: 그래요, 우리 다섯 번 동극을 한 중에 한 번도 배우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번에 배우를 했어요, 이 친구들은 배우가 너무 힘든 줄 알았나봐요, 다른 친구들 마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2008.06.27. 5차 동극 평가)

가은이는 학급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유아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의견도 잘 발표하고, 생각과 느낌을 조리있게 잘 표현한다. 이런 가은이가 4차 동극까지 배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했는데 위의 사례를 통해 교사가 분석한 바와 같이 가은이는 배우 역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많은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동화유치원 만 5세 과랑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연구로서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와 동극 활동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동극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08년 3월 14일 본 연구자는 ‘커다란 순무’ 동화를 유아들에게 읽어준 후 곧바로 배역을 정하고 미리 준비한 소품을 착용한 후 동극 공연을 하였다. 배우로 선정되지 못한 유아들은 관객이 되어 공연을 관람했고 공연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3월에 과랑반 유아들이 실시한 동극 활동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배우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역은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유아들이 배우 역할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배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배역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동극 공연을 2회 연이어 하거나, 소품을 역할 영역에 비치해 두어 유아들이 자유 선택활동시간에 활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미 배우 선정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한 유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배역을 맡고 싶었지만 관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유아들의 적극적인 관람을 기대하기는 어려웠

다.

둘째, 동극 진행과정에서 배우들이 등장과 퇴장, 대사 말하기, 행동하기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동극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하여 동극 공연 전에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동화 내용을 회상하며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지만 여전히 유아들이 동극을 표상활동으로 자유롭게 진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첫째, 동극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역할을 박현순(2002)의 연구를 토대로 극작가, 스텝, 배우로 나누어 유아들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화를 읽어주고 파랑반 전체 유아들과 동극을 위한 대본, 등장인물의 배역, 등장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소품, 그리고 무대 꾸미기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유아들은 극작가, 스텝, 배우 중 자신들이 원하는 역할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박현순(2002)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유아들이 또래와 의미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지식과 이해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 동화를 들은 후 유아들이 게임이나 신체 표현 등의 대집단 활동과 조작활동, 조형활동, 언어활동 등의 자유 선택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실시하였다.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은 동화를 들은 후 동극이 이루어지기까지 1-2주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유아들은 공연에서 배역을 맡아 대사를 할 때 예전보다 대사 말하는 것을 자연스러워했다. 이는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이 유아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주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래 유아들과 다양한 생각을 교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게 되어 언어 표현력과 언어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선호, 2003)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2)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해 여섯 차례의 동극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는 역할 제시자, 역할 시범자, 역할 참여자, 역할 지지자, 소극적 유아 지원자,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로 역할을 변화해 나갔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 변화를 동극 진행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역할 제시자로서의 교사: 교사와 유아의 재량권 조절하기

1차 동극 활동인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에서 교사는 역할 제시자로서 유아들에게 극작가, 스텝, 배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극작가 역할을 지원한 유아들과 함께 대본 만들기를 했지만 극작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유아들은 대본 만들기에 흥미가 없었고 교사도 대본 만들기를 위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다. 또한 교사는 소품 제작에 대해서는 유아들이 늘 조형영역에서 만들기와 꾸미기를 하기 때문에 스텝 역할 수행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 혼자서 등장인물을 표현해 줄 소품을 창안하여 제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가 유아들의 준비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유아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극작가’라는 생소한 역할에 대해 역할 분담 전 극작가가 왜 필요한지와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만 진행했을 뿐 실제로 극작가의 작업을 함께 실행해 보지는 않았다. 교사는 유아들이 교사의 언어적 설명만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였고 그 결과 유아들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자로 하여금 전조작기 단계 유아의 발달특성과 교육 활동 간의 적합성에 대해서 재고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소품제작에 있어서도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에게 각각의 등장인물이 필요로 하는 소품까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 했지만 유아들은 소품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의 면담 결과 유아들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 때 교사가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에게 소품을 제작할 특정 등장인물을 정해주고, 세부적인 소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등의 적절한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역할 시범자로서의 교사: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한 참여 동기 부여하기

2차 동극 활동인 ‘검피 아저씨와 뱃놀이’에서 교사는 1차 동극 활동에서 극작가와 스텝 역할 수행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랑반 전체 유아들이 극작가와 스텝 역할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교사는 역할 시범자로서 유아들과 극작가, 스텝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동화를 들려준 후, 전체 유아들과 함께 대본 만들기를 실행했다. 다음으로 소품 제작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와 유아들은 등장인물의 등장순서, 특징등에 대해 알아보고 각 등장인물별로 필요한 소품에 관해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렇게 소품에 관한 협의가 끝나면 모든 유아가 스텝의 역할을 경험해보기 위해 한 가지 소품을 2명 이상의 유아가 협력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유아들과 대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능력이 뛰어난 유아들은 더 세분화되고 창의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며, 언어능력이 미숙한 유아들에게는 또래의 모델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Vygotsky(1978)가 제시한 근접발달

지대에 머무르도록 하는 비계설정의 역할을 또래 유아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품 제작에 2인 이상의 유아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기와 꾸미기에 소극적인 유아들도 적극적인 유아들과 협력함으로써 만들기와 꾸미기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소품 제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유아들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반대로 소극적인 성격으로 동극 활동에서 배우 역할에 지원하지 못했던 유아들도 스텝이라는 역할을 통해 동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박현순(2002)의 연구에서 평소 소극적이었던 유아가 친구들이 연기를 잘 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텝 역할을 했고 이러한 과정은 유아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동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3) 역할 참여자로서의 교사: 창의적, 확산적 사고 격려하기

3차 동극 활동인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에서 교사는 역할 참여자로서 다음과 같이 극작가, 스텝, 배우의 역할에 참여해 유아들의 창의적, 확산적 사고를 격려하였다.

첫째, 교사는 2차 동극 활동 때 전체 유아들과 함께 대본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3차 동극 활동부터는 유아가 주도하여 대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유아들은 동화의 내용을 해설의 말과 등장인물의 대사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이 때문에 교사는 극작가를 지원한 소그룹의 유아들과 함께 대본 만들기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대본 제작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질문을 던짐으로서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재미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교사는

대사의 도입 부분을 함께 시작해 주거나, 주요 단어를 암시해 주는 등의 개입을 통해 유아들에게 대본 만들기에 있어 비계설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장영미(1998)는 유아의 극놀이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극놀이를 전진시키는 교사의 역할을 ‘아이디어 지지자’이라고 칭하였다. 이와 같이 대본 만들기 과정에서 교사는 역할 시범자에서 참여자로 유아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생동감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늘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품 준비를 위해 전체 유아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어 등장인물별 소품을 정하고,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량반의 동극 소품은 일반 동극에서 사용하는 머리띠나 목걸이 등과 같이 정형화된 것들 보다는 창의적인 소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소품 제작에서 얼굴, 날개, 꼬리 등의 소품 제작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대상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 의상 제작까지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시간 절약과 원활한 동극 진행을 위해 상품화된 동극 소품을 사용하거나, 유아들에게 등장인물 얼굴본에 색칠을 하게 하여 머리띠나 목걸이로 만드는 등의 과정이 과연 어떤 교육 목표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지식과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상호주관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장영미, 1998), 교사의 일방적인 자료 제시는 동극 활동의 상호주관성과 더불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동극을 공연할 때 교사는 표현력이 부족한 배우를 도와 무대 위에서 배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교사는 유아들이 대본의 대사를 기본으로 자신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동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표현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유아의 창의적인 표현을 격려해 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Berk와 Winsler(1995)는 유아들의 과제에 도전하려는 태도는 성인이 명랑하고, 따뜻하고 반응적일 때, 그리고 언어적 칭찬과 적절하게 자심감을 북돋워 줄 때 최대화된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직접 교수 보다는 유아들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발견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현순(2002)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교사의 해설이 배우가 해야 할 대사나 행동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교사는 등장인물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유아들에게는 직접적인 행동 표현이나 대사 표현을 지도하기보다는 해설을 맡아 배우들이 극의 흐름에 따라 대화와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동화의 장면을 묘사하듯 이야기해 주었다. 이와 같이 유아의 유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교사는 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역할 제시자로서의 교사: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 부여하기

4차 동극 활동인 ‘꼬리를 돌려 주세요’에서 교사는 역할 지지자로서 극작가, 스텝, 배우의 역할 수행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각 역할을 맡은 유아들을 조력하고 지원하는데 힘썼다. 교사는 유아들이 극작가를 많이 지원하는 현상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고, 그 결과 유아들은 극작가 역할을 통한 대본 만들기 과정에서 학습적 매력을 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배우들의 표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는 파랑반 전체 유아들과 등장인물에 따른 배우를 정할 때 등장인물의 특징까지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극작가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동화의 내용을 대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이 되어 감정을 이입하거나 동일시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 극작가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타인의 사고, 감정, 의도를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들이 극작가의 역할을 하며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한 나영이(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교사와 전체 유아가 등장인물의 언어나 행동 표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배역을 맡지 않은 유아들의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관객이 되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또한 배역을 맡은 유아들 입장에서는 또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혼자만이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함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영미(1998)의 유아의 극 놀이에 관한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배우 역할을 맡은 유아들의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 전체 유아와의 협의가 자칫 배우들에게 정형화된 모습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교사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공연에서 더욱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또래가 배우 유아에게 있어 좀 더 높은 수준의 비계 설정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유아들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 부여보다는 또래 간 협의가 유아들의 각기 다른 근접발달지대에 대한 비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소극적 유아 지원자로서의 교사: 동극활동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회에 대한 배려

5차 동극 활동인 ‘무지개 물고기’에서 교사는 소극적 유아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동극 활동 개선 과정에서 교사는 역할 분담에서 정해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네 차례의 동극 활동에서 한 번도 배우를 지원하지 않은 유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유아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에게 배우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

다. 박현순(2002)도 유아들이 동극을 통해 앞에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배역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지난 네 차례의 동극 활동에서 배우 역할을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유아들을 배우로 선정해서 이들이 배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소극적 유아들의 배우 역할 지지를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사는 직접적인 대사나 행동표현의 연기 지도가 아닌 동극을 하고 있는 또래의 도움이나 관객의 도움, 교사의 대사에 대한 단서 제공을 통해 유아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지각과 동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배우가 된 유아가 대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사가 ‘같이’ 이야기하라고 지지하고 극이 중단되었을 때는 극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배우 스스로 파악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5차 동극 활동에서 배우가 된 유아들의 빠른 적응은 배우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동료들의 공연을 보며 배우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는 유아들이 또래의 모습을 관찰하며 습득한 간접 경험이 내면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배우 중심의 단순한 동극 진행이 동극 과정 속에서 유아들이 얻을 수 있는 문학적 지식과 표현의 기술, 협력적 태도를 간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객이 공연을 적극적인 자세로 관람한다면 차후의 배우 역할을 수행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6)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로서의 교사: 유아의 주도적 역할 지원하기

지난 다섯 차례의 동극 활동 개선 과정을 재분석한 결과 교사가 여전히 유아들의 역할 분담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6차 동극 활동에서는 유아들이 주도하여 역할 분담을 하였고, 교사는 이에 대한 조력자,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아들이 주도한 배우 역할 정하기 과정에서 등장인물 수보다 많은 유아들이 배우를 지원하게 된 사례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여러 가지 방법(양보하기, 가위바위보하기, 무작위 선택하기, 교사 지시에 따르기, 의논하기, 내기하기)들을 제안하였고 여기에서 유아들은 한 역할을 두 명씩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지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기보다는 유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 또한 의견 제시자의 일원이 되어 참여할 때 비로소 유아들의 문제해결력과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동극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변화

동극 활동 개선 과정에서 유아들은 역할 분담과 동화 관련 통합 활동을 통해 한 편의 동극이 진행되는 동안 극작가, 스텝, 배우, 관객, 평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색된 동화를 이용하지 않고 그림책 그대로를 읽어주고 동극 활동을 실행했기 때문에 대본 만들기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과량반 유아들은 ‘극작가’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1차 동극 활동 대본 만들기에서 유아들이 극작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파악하게 되었다. 2차 동극 활동 시 과량반 전체 유아들과 대본 만들기를 실행하고 3차 동극 활

동부터 극작가 역할을 지원한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대본 만들기를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와 유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학습해 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와 유아들은 대본 작성이라는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대본 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단어를 제시하는 수준의 극작가에서 동화의 즐거리를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극작가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은 유아들이 교사 및 유능한 또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Vygotsky(1978)의 비계 설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는 상품화된 동극 소품이나 등장인물 그림본 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랑반 유아들은 등장인물을 표현할 소품을 제작하는 스텝 역할을 수행했다. 교사가 스텝 역할을 통해 소품 제작을 계획한 의도는 정형화된 소품을 이용한 동극 공연을 지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학급 전체 유아가 동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의 측면이 더 강했다.

그 결과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정형화된 소품 제작보다는 등장인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은 전체 유아들과 함께 협의하여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여 완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단순하고 정형화된 소품을 제작하는 스텝에서 창의적이고 협동할 줄 아는 스텝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통합적 동극 활동을 통해 스텝 역할의 유아들이 등장인물을 파악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소품을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며 활동 마무리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의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모습은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에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동극 활동 초기에 배우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등장과 퇴장, 자기소개, 대사 말하기, 행동하기 등의 배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극 활동이 거듭될수록 등장인물로서 무대의 등장과 퇴장, 상대배역과의 위치 조절, 대사를 할 때 관객과 상대 배우에 따라 시선과 몸의 처리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은 파랑반 유아들은 매회 동극 활동에서 직접 배우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동극 활동 진행 과정에서 극작가, 스텝, 관객, 평가자의 역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 역할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5차 동극 활동에서 처음 배역을 맡은 유아들은 자신들이 직접 배우 역할을 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동료들의 연기를 보며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아들은 동료 배우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기도 하고 좀 더 발전시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의 직접적인 경험은 물론 간접적이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동극 활동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역할 분담 과정에서 극작가와 스텝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배우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연기할 때, 모두 관객이 되어 동극을 관람하게 되었다. 이 때 관객들은 예전처럼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상관없는 방관자가 아닌 ‘내가 만든 의상을 입은 친구가 공연을 한다.’ ‘내가 만든 대사를 친구가 이야기한다.’ ‘내가 꾸민 무대에서 친구가 공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배역을 맡지 않더라도 동극 활동에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객들은 배우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극의 진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관객이 된 유아들은 극의 흐름을 잘 알고 있고, 극작가나 스

템의 역할을 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극의 진행을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객들은 배우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등장과 퇴장을 알려주거나 대사를 대신하며 배우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은 한 편의 동극이 이루어지기까지 학급 전체 유아의 참여도와 참여에 따른 흥미의 증진이 이루어질 때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과랑반에서는 동극 공연이 끝나면 바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배우 역할을 한 유아는 배우 입장에서 관객이 된 유아는 관객의 입장에서 동극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동극 활동이 거듭될수록 유아들의 평가는 재미의 유무나 배우들의 동작적 표현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배우들의 언어적 표현에 따른 음량의 크기, 발음의 정확도, 동선 등에 대한 부족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부분의 평가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흥미와 만족도, 발달수준, 개선점 등을 파악하여 다음 활동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들의 이런 변화는 동극 공연을 단순한 볼거리로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유아들이 평가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한 박현순(200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아들은 배우의 행동을 자신의 사전 지식과 경험과 연계하여 평가하거나 타인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유치원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거하여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학급 전체 유아가 모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동극 활동을 진행하고자 실행되었다. 본 연구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극작가 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대본 작성 과정에서 동화의 줄거리에 충실하여 대본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어 유아들의 개작이나 새로운 결말, 아이디어 첨가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작 과정이 가미된 대본 만들기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동극 활동 과정에서 배우 역할을 맡은 유아들의 준비 과정이 충분히 기술되지 못했다. 그들의 창의적인 표현이 어떠한 원동력에 의해 발휘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여 유아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본 연구는 만 5세반에서 이루어지는 동극 활동에 대한 실행 연구였다. 추후에는 만 3세반, 만 4세반에서 이루어지는 동극 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연구가 이루어져 연령에 적합한 동극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문희, 이혜상(1997). 아동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 고문숙, 임영심(1999). 유아를 위한 문학 교육. 서울: 정민사.
- 강태희(2007). 창작동화를 이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8-10호.
- 교육부(1998). 제 6차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집.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김미예(2000). 동화를 활용한 동극 중심의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2007). 반편견 동화를 통한 동극활동이 유아의 편견감소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천(2008). 질적연구-우리나라의 걸작선. 서울: 문음사
- 김효정(2005). 통합적 동극 활동이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순(2002). 동화를 활용한 동극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헌재 · 권혁준 · 곽춘옥(2007). 아동문학과 교육. 서울: 박이정.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향미(1995). 유아의 사회 극적 놀이에서 교사 개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우 · 장영희 · 이차숙 · 노영희 · 현은자(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서울: 양서원.
- 이귀열(2007). 동화를 통한 동극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남정(1990). 극화놀이가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미(2004). 동극을 통한 수학교육 활동이 유아의 수학개념 습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영(2005). 동화를 활용한 동극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숙·김영천·이혁규·김영미·조덕주·조재식(2005).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용숙,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교육과학사.
- 이현순(1990). 극놀이 영역에서의 교사개입이 유아의 놀이 지속시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차숙, 노명완(1995). 유아언어교육론. 서울:학문사.
- 임금선(2000). 동극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미(1998). 유아의 극놀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지영·김성혜(2005). 유아동극활동. 서울: 다음세대.
- 정은주(2008). 동극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남(1990).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극놀이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주행(1999). 현장교육연구 워크샵. 서울:교육과학사.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1989). 활동중심 통합교육과정. 양서원.
- 최순자(2005). 통합적 동극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2003). 동극중심의 통합교육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은자 외(2007). 그림책과 예술교육. 서울: 학지사.

Berk, L. E., & Winster, A.(1995). 어린이들의 학습에 비계설정(Scaffolding):
비고스키와 유아교육. 홍용희(역), 서울: 창지사.

Bogdan, C. R., & Biklen, K. S.(1982). 교육연구의 새접근: 질적연구. 신옥
순(역), 1991. 서울: 교육과학사.

James P. Spradley(2006). 참여관찰법. 신재영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Whitehead.R.(1994). 아동 문학 교육론. 신현재 편역. 서울: 범우사.

Abstract

An Action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in the Juvenile Drama Activities Taken by Parang Class Consisting of 5-Year-Old Children

This is an action research that this researcher, who is the class teacher of Parang Class of Donghwa Kindergarten, conducted with the interest in the improvement in the juvenile drama activities taken in the class. This research purports to find out the problems with the juvenile drama activities, to analyze any changes in the teacher's roles and the children that are found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and then, to improve the teaching-learning method. Based on the research goal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sked:

1. What were the problems with the juvenile drama activities taken in Parang Class consisting of 5-year old children?
2. How did the teacher's roles change to improve the juvenile drama activities in Parang Class?
3. How did the children of Parang Class change in taking juvenile drama activiti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Parang Class consisting of 5 year old children of Donghwa Kindergarten located at A-gu, Incheon. 30 children of Parang Class and the class teacher, this researcher,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It was conducted from March 14, 2008 to July 15, 2008. In order to find out any problems, the children performed a juvenile drama once, a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t was performed 6 times.

For this action research, the action research model was referred, which is composed of: the step of finding problems and making a plan for changes; the step of practicing the plan and observing changes and results; the step of examining (reflecting on) the process and results; the step of practicing a corrected plan, observing, and reflecting 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ting observation, photographing and video filming, in-depth interview, and writing a journal. This research interpreted the collected data by type, categorized them, and then,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n the juvenile drama activities that this researcher led at ordinary times, a small number of children among many children were cast to several characters. In this process, the children who were not cast to the characters they wanted complained about it and conflicts were caused. The children had difficulty in entering the stage, leaving the stage, reading their lines, and acting.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research assigned all the children to a role of a writer, staff, or actors/actresses. In addition, through the integrated activities regarding a drama, it planned for them to be familiar with the topic of a drama, its characters, and story, and then, practiced it.

In the improvement process for the juvenile drama which was performed 6 times, the teacher read the story and the role play and the integrated activities regarding the story were taken. When the children played the roles of a writer, staff, and actors/actresses, the teacher worked as a presenter, a demonstrator, a participator, or a supporter. As the drama was performed repetitively, the teacher reduced her involvement in the children's roles, and just worked as a passive supporter and permitter for the children's full roles.

Third, the children played the roles of a writer, staff, actors/actresses, audience, or evaluators. As the drama was performed repetitively, the children were changed into the writer who understood the story and expressed it from the writer who just presented some words only. The children playing the roles of staff could make creative items, instead of fixed items, and they cooperated with their colleagues. At first, the children playing the roles of actors/actresses didn't play their roles to the full in terms of reading the lines, acting, entering the stage, and leaving the stage, but as the drama was performed repetitively, they could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s and show creative ideas. The children, who were the audience, were changed into the participators who helped the actors/actresses' entering and leaving the stage, and reading the lines. Finally, the children simply evaluated the actors/actresses in the beginning, but as the drama was performed repetitively, they concretely evaluated the actors/actresses' acts and the interpreter's roles, and even they evaluated from the viewpoints of the audience who enjoyed the drama.

부 록

<교육활동계획안>

1.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
2.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3.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4. 꼬리를 돌려주세요
5. 무지개 물고기
6.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 부록 > 교육활동계획안

생활주제	동물	활동기간	2008.04.07~04.25
------	----	------	------------------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볼프 예를브루흐 그림 / 베르너 홀츠바르트 글)	
줄거리	두더지는 자기의 머리에 똥을 쓴 것이 누구인지를 찾아나선다. 비둘기, 말, 토끼, 염소, 소, 돼지 모두 자신들의 똥을 보여주며 아니라고 한다. 두더지는 파리로부터 정육점 개 한스의 것임을 알게 되고, 두더지는 한스의 머리에 똥을 싸고 기분 좋게 땅 속으로 사라진다.	
선정이유	유아의 측면) ①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와 그와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 '똥'이란 동화의 소재가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두더지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반성적 사고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망수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동화적 측면) ① 대화의 반복으로 인해 유아들이 쉽게 이해·표현할 수 있다. ② 마지막 부분을 각색하여 활동해 볼 수 있다.	
활동목표	① 동물 배설물의 모양과 특징에 관심을 갖는다. ②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가운데 탐구심을 증진할 수 있다.	
활동내용	언어영역-입체 작은 책 만들기	
	1수준	2수준
	*A4용지 1/4크기의 12쪽짜리 작은 책을 교사가 미리 준비해 주고,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동물들과 배설물을 오리 붙인다. 장면마다 나오는 두더지는 코팅하여 만든 후 끈을 달아 책갈피처럼 넘겨가며 활용한다.	*동물들과 배설물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대화도 적어본다. *마지막 부분은 각색하여 표현해 볼 수 있다.
	게임활동-누구의 똥일까?	
	1수준	2수준

	*주사위에는 동물과 그에 해당하는 배설물을 같이 붙여 놓고 게임판에는 동물 그림만 붙여둔다. 주사위를 굴러 나온 동물의 배설물을 주사위에서 떼어내어 게임판의 동물 옆에 가져다 붙인다.	*주사위에는 동물그림만 붙이고 게임판에는 각 동물의 배설물만 붙여둔다. 주사위를 굴러나온 동물의 배설물을 떼어 가지고 온다.	
활동내용	언어(토의활동)-내가 작가라면		
	1수준	2수준	
	*동화의 개괄적인 내용을 사진 컷으로 만든다. 사진 컷을 이용하여 작은 책 만들기를 한 후 마지막 장면을 사진 컷 없이 빈 칸으로 내어 주어 유아들이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그려본다.	*동화의 마지막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지어 본다. *동화의 소재만을 이용하고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새롭게 동화를 지어본다.	
	언어영역-한스에게 편지쓰기		
	1수준	2수준	
	*한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그려 편지를 써 보거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 글로 적는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한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완성해 본다.	
	조작영역-책 표지 퍼즐		
	1수준	2수준	
*책 표지를 칼라로 복사하여 코팅한 후 우드락에 덧대어 퍼즐판을 만든다. 1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개수를 5-6정도로 한정짓는다.	*2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갯수를 10개 정도로 늘려 제작하도록 한다.		
생활주제	가족과 이웃	활동기간	2008.05.06~05.30
그림책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존 버닝 햄 그림/글)		

줄거리	<p>강가에 살고 있는 검피 아저씨의 배에 아이들과 토끼, 개, 고양이, 양, 닭, 송아지, 염소들이 함께 타게 된다. 검피 아저씨는 아이들과 동물들에게 각 등장인물이 지니는 특징적인 행동을 배 안에서 하면 안 될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배 안에 탄 모든 등장인물들은 약속을 어긴 채 각기 자신들만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고 만다. 아이들과 동물들은 몸을 말리고 검피 아저씨택에서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다.</p>	
선정이유	<p>유아의 측면) ①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 동화의 내용이 유아들에게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검피 아저씨의 행동을 통한 토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도덕성 발달 능력을 증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p> <p>동화적 측면) ① 등장하는 동물이 지닌 특징적 행동을 통해 동물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할 수 있다. ② 대사의 반복과 단순구성으로 인해 유아들이 쉽게 동화의 내용을 이해·표현할 수 있다.</p>	
활동목표	<p>① 다양한 동물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표현해 볼 수 있다. ②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추측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도덕성 발달을 증진할 수 있다.</p>	
활동내용	언어(토의활동)-검피 아저씨는 왜 그랬을까?	
	1수준	2수준
	<p>*검피 아저씨가 배에 타는 모든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두 물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피 아저씨가 전혀 화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토의해 본다. (내가 검피 아저씨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p>	<p>*2수준임을 고려하여 검피 아저씨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추론해 본다. 동물들이 배에 타기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동물들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본다.</p>

	음률(신체표현)-동물 흉내내기		
	1수준	2수준	
	*교사는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에 나온 동물들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움직임을 익힌 후 유아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동물의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해 본다.	*동물들의 상황에 따른 움직임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낱말카드를 이용해서 동물들이 화가 났을 때 기쁠 때 배가 고플 때 등 동물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소리도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한다.	
활동내용	조형-검피 아저씨 배에 타기		
	1수준	2수준	
	*교사는 OHP필름과 유성매직을 제공하여 준다. 1수준 유아임을 고려하여 교사는 유아들의 역할 분담을 도와 각각 등장인물을 만들어 오도록 한다. 모든 등장인물이 타게 될 배는 교사가 만들어 제공하도록 한다.	*교사는 OHP필름과 유성매직을 제공하여 준다. 협동작품임을 고려하여 일부 유아들은 커다란 배를 만들고 나머지 유아들은 배에 탈 등장인물들을 만든다. 배 위에 하나하나씩 겹쳐지는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조각-책 표지 퍼즐		
	1수준	2수준	
	*책 표지를 칼라로 복사하여 코팅한 후 우드락에 덧대어 퍼즐판을 만든다. 1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개수를 5-6정도로 한정짓는다.	*2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갯수를 10개 정도로 늘려 제작하도록 한다.	
생활주제	건강한 몸과 마음	활동기간	2008.06.02~06.05
동화제목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최숙희 그림 / 조대인 글)		

줄거리	<p>팔죽 할머니가 산 밑에서 팔을 심고 있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호랑이는 팔죽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나 할머니는 팔 발매기 시험을 제안하고 위기를 모면한다. 겨울이 되어 할머니는 팔죽을 끊이게 되고 호랑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할머니를 돕겠다며 밤뜰, 자라, 쇠똥, 맷돌, 멍석, 지게가 피를 낸다. 호랑이는 밤뜰, 자라, 쇠똥, 맷돌, 멍석, 지게의 피에 걸려 물속에 빠지고 팔죽 할머니는 잘 지내게 된다.</p>	
선정이유	<p>유아의 측면) ①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 유아들의 언어발달 능력이 증진될 수 있다. ② 문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사고의 유연성이 증진될 수 있다.</p> <p>동화적 측면) ① 전래동화를 통해 유아들이 전통문화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② 다양한 사물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p>	
활동목표	① 다양한 사물들의 특징과 움직임을 표현해 볼 수 있다. ② 전래동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와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활동내용	언어(토의활동)-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1수준	2수준
	<p>*팔죽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가 결국은 물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물 속에 빠진 호랑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에 관해 토의해 본다.</p>	<p>*동화의 뒷부분에 대한 추론활동을 통해 동화를 각색해 본다. (정말 호랑이는 물에 빠진 것일까?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할머니와 호랑이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p>

생활주제	건강한 몸과 마음	활동기간	2008.06.10~06.17
그림책	꼬리를 돌려 주세요 (노니 호그로지안 그림/글)		

	조작-책 표지 퍼즐	
줄거리	<p>한다. 화가 난 할머니는 여우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여우는 친구들의 놀림이 줄어들기를 두려워하여 곡쪼를 한다. 달걀과 바깥을 다시 구슬과 바깥으로 옮기려는 여우의 마음을 고려하여 퍼즐 조각의 개수를 10개 정도로 늘려 제작하도록 한다.</p>	<p>2수준 친구들의 놀림이 줄어들기를 두려워하여 곡쪼를 한다. 달걀과 바깥을 다시 구슬과 바깥으로 옮기려는 여우의 마음을 고려하여 퍼즐 조각의 개수를 5-6정도로 한정짓는다.</p>
	언어영역-‘흥내내는 말’책 만들기	
선정이유	<p>① 논리적 귀결의 수순화내용을 통해 유아들의 도덕성 발달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교차 단. 동화에 나온 지게, 명석이의 에 대한 사물과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동화적(추명) 책 만들기를 제공한다. ① 책 속의 사물을 그려서 그려진 그림을 색칠할 수 있다. ② 잘 못 아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통해 유아들의 깊은 생각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p>	<p>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하다. *책 속에는 사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유아들은 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글로 써서 ‘흥내내는 말’ 책을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한다.</p>
활동목표	<p>한다. ① 논리적인 도형의 내용은 이해하고 표현한다.</p> <p>게임-팔 발매기</p>	
	1수준	2수준
활동내용	<p>조형-여우 다리오네뜨 만들기 *팔 받의 잡초를 뽑아와서 새로운 팔 받을 완성하도록 한다. 단, 처음 잡초를 뽑아올 때는 자기팀의 팔 밑에서 뽑아올 수 있도록 팔 받과 팔 받의 높이를 조절하여 잡초를 뽑아올 수 있도록 한다.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팔 받의 잡초를 뽑아올 수 있도록 한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팔 받의 잡초를 뽑아올 수 있도록 한다.</p>	
활동내용	<p>조형영역-점핑클레이로 등장인물 만들기</p>	
	1수준	2수준
	<p>*점핑 클레이를 이용하여 등장인물의 모습을 만들어 본다. 1수준임을 고려하여 등장인물의 전체보다는 얼굴만을 평면으로 구성해 본다. *2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등장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입체로 만들어 본다. 요구르트병을 이용하여 몸통을 꾸미도록 하면 유아들이 더욱 쉽게 입체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p>	

	게임-연관있는 것 찾기	
	1수준	2수준
	*1수준임을 고려하여 등장인물과 그에 해당하는 소품에 같은 번호를 붙여 두어 유아들이 번호만으로도 해당 소품을 가지고 오도록 한다.	*동화 속 등장인물, 등장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을 짝지어 보는 게임이다. 출발 후 상자 속에 손을 넣어 등장인물을 뽑고 달려가서 게임판에 있는 등장인물과 관련된 소품을 가지고 온다.
활동내용	조각-책 표지 퍼즐	
	1수준	2수준
	*책 표지를 칼라로 복사하여 코팅한 후 우드락에 덧대어 퍼즐판을 만든다. 1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개수를 5-6정도로 한정짓는다.	*2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개수를 10개 정도로 늘려 제작하도록 한다.
	언어(토의활동)-내가 만약 할머니였다면	
	1수준	2수준
	*내가 만약 할머니였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유아들과 토의활동을 해 본다. 교사는 유아들의 생각을 글로 받아 적어주거나 유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내가 만약 할머니였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각자의 생각을 발표 후 친구들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발표하도록 하여 활발한 토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활주제	계절(여름)	활동기간	2008.06.19~06.27
동화제목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글/그림)		
줄거리	무지개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비늘을 가지고 있었다. 무지개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이 비늘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고 결국은 다른 물고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문어 아주머니의 조언을 얻고 자신이 가진 비늘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준다. 무지개 물고기는 아름다운 비늘은 잃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친구들의 사랑을 얻게 된다.		
선정이유	유아의 측면) ①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조망수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② 친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우정을 경험할 수 있다. 동화적 측면) ①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② 무지개 물고기의 비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환상성을 통해 작품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기 쉽다.		
활동목표	① 동극을 통해 유아들의 조망수용능력을 증진한다. ② 동화를 익히고 표현하는 가운데 친사회적 기술을 증진할 수 있다.		
활동내용	조형- OHP 종이에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		
	1수준	2수준	
	*홀로그램 필름지를 이용하여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어 본다. 물고기 모양의 두꺼운 도화지를 제공하고 유아들은 홀로그램 필름지를 잘라 물고기의 비늘을 완성해 본다. 1수준임을 고려하여 비늘의 크기를 크게하고 숫자를 줄여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홀로그램 필름지를 이용하여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어 본다. 물고기 모양의 두꺼운 도화지를 제공하고 유아들은 홀로그램 필름지를 잘라 물고기의 비늘을 완성해 본다. 2수준 유아이므로 비늘은 작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본다	

활동내용	언어-무지개 물고기에 편지쓰기	
	1수준	2수준
	*무지개 물고기에 편지를 써서 무지개 물고기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도록 한다. 1수준 유아임을 고려하여 교사가 글로 쓰는 것을 돕거나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	*무지개 물고기에 편지를 써서 물고기에 마음을 전하도록 한다.
활동내용	조작-무지개 물고기 바느질	
	1수준	2수준
	*무지개 물고기 모양을 본 때 종이를 제공하여 주고 색연필로 꾸민다. 핀으로 바늘 구멍에 구멍을 내고 실을 꿰어 바느질은 한다. 1수준임을 고려하여 바느질 구멍의 개수를 조절하여 준다.	*무지개 물고기 모양을 본 때 종이를 제공하여 주고 색연필로 꾸민다. 핀으로 바늘 구멍에 구멍을 내고 실을 꿰어 바느질은 한다. 2수준임을 고려하여 바느질 구멍의 개수를 많이 내어 준다.
	조작-책 표지 퍼즐	
	1수준	2수준
	*책 표지를 칼라로 복사하여 코팅한 후 우드락에 덧대어 퍼즐판을 만든다. 1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개수를 5-6정도로 한정짓는다.	*2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갯수를 10개 정도로 늘려 제작하도록 한다.
활동내용	게임- 반짝이 비늘 나누어 주기	
	1수준	2수준
	*유아들은 반짝이 비늘이 붙어 있는 부직포 옷을 입는다. 반짝이 비늘은 부직포나 홀로그램 필름지에 찍찍이를 붙여 부직포 옷에 붙인다. 게임이 시작되면 자신의 옷에 붙어 있는 비늘을 떼어 상대방의 옷에 붙인다. 두	*자신의 옷에 있는 비늘을 떼어 상대방의 옷에 붙이기 전 물고기가 헤엄치는 흉내를 낸 후 게임시작하기 등 게임의 전략을 첨가하여 준다.

	팀의 비늘색이 다르도록 옷을 제작한다.		
생활주제	계절(여름)	활동기간	2008.06.30~07.15
동화제목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존 버닝햄 그림/글)		
줄거리	주인공은 강아지 인형과 함께 꿈 속에서 기차여행을 떠난다. 여행길에서 코끼리, 물개, 두루미, 호랑이, 북극곰을 만나게 된다. 이 동물들은 모두 자신들의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사람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한다. 주인공은 이들과 함께 꿈 속 기차여행을 다니다가 잠에서 깨어나보니 집 안에 이들 동물들이 함께 있다.		
선정이유	유아의 측면) ① 유아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동물들의 피해를 알려줄 수 있다. ② 상대방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동화적 측면) ①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라는 반복어구가 유아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준다. ② 다양한 놀이 모습을 창의적인 동작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활동목표	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다. ② 동화에서 제시하는 놀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본다.		
활동내용	조형-우산 만들기		
	1수준	2수준	
	*OHP 종이를 직경 10-15cm 원형으로 잘라 제시한다. 유아들은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을 보고 그린다. 그림이 완성되면 반지름을 잘라 원뿔 모양으로 접고, 깎은 빨대로 손잡이를 연결하여 완성한다.	*1수준과 같은 방법이며, 2수준임을 고려하여 등장인물들이 놀이하는 장면을 회상하여 그릴 수 있다.	

	조형-기차에 동물들 태우기	
	1수준	2수준
	*도화지를 가로로 1/2로 잘라 연결하여 길게 만들어 기차 밑그림을 그려 제시한다. 유아들은 등장인물이 그려진 도안을 색칠하여 오려 기차 칸에 붙인다.	*도화지를 가로로 1/2로 잘라 연결하여 길게 만들어 기차 밑그림을 그려 제시한다. 유아들이 기차 칸에 동물들을 승차 순서를 회상하며 그린다.
활동내용	조각-책 표지 퍼즐	
	1수준	2수준
	*책 표지를 칼라로 복사하여 코팅한 후 우드락에 덧대어 퍼즐판을 만든다. 1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개수를 5-6정도로 한정짓는다.	*2수준의 유아임을 고려하여 퍼즐조각의 갯수를 10개 정도로 늘려 제작하도록 한다.
	게임-기차타고 돌아오기	
	1수준	2수준
	*홀라후프 2개를 연결하여 기차로 꾸민다. 2명의 유아가 한 팀에 되어 반환점을 돌아온다.	*홀라후프 3개를 연결하여 기차로 꾸민다. 3명의 유아가 한 팀에 되어 반환점을 돌아온다.

